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아동가족학석사 학위논문

중국 맞벌이 근로자의 일-가정 갈등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이원적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

2023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왕해옥

중국 맞벌이 근로자의 일-가정 갈등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이원적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

지도교수 Grace H. Chung

이 논문을 아동가족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 년 1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왕해옥

왕해옥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 년 1 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중국 맞벌이 근로자가 경험하고 있는 일-가정 및 가정-일 갈등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부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를 탐색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맞벌이 근로자의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의 대처 방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개인차원에 주목하여 부부차원의 대처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부차원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초점을 두고 부부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일-가정 갈등 및 가정-일 갈등과 부부의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성별 차이...

본 연구의 참여자는 0-6세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남성 181명과 여성 251명이었다. 분석 자료는 2021년 10월에 온라인 설문조사로 수집한 응답 내용이었다.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일-가정 갈등, 가정-일 갈등,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스트레스 소통, 배우자의 부정적 이원 대처 방식,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 방식), 결혼 만족도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연령, 최종학력, 혼인 지속 시간, 취업 상태, 주 근무시간, 월 소득, 자녀의 수, 자녀의 기관 돌봄 여부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정 갈등 및 가정-일 갈등이 결혼 만족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탐색한 결과 중국 맞벌이 근로자가 가정-일 갈등을 높게 지각할 수록 개인의 결혼 만족도는 낮았고 개인의 일-가정 갈등은 결혼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중국 맞벌이 근로자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들이 개인의 가정-일 갈등과 결혼 만족도의 부적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 개인의 스트레스 소통과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 방식이 양자의 부적 관계를 완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셋째, 스트레스 소통과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방식이 가정-일 갈등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맞벌이 근로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소통 및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 방식은 맞벌이 여성의 가정-일 갈등과 결혼 만족도의 부적 관계만 완화할 수 있었으며 맞벌이 남성의 가정-일 갈등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가정 갈등 및 가정-일 갈등과 결혼 만족도간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Bodenmann의 체계적 교환 모델(STM: Systemic transactional model)과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질병이나 삶의 특별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는 일상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3가지 대표적인 하위 요인들이 각각 개인의 결혼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 사용 수준에 따라 가정-일 갈등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조절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맞벌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맞벌이 근로자, 일-가정 갈등, 가정-일 갈등, 결혼 만족도,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 조절효과
학번: 2019-27523

목차

국문 초록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II 선행연구 고찰 ····· 6

1. 일-가정 갈등 ····· 6
2. 일-가정 갈등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 ····· 6
3. 일-가정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개인 대처(Individual Coping)와 부부의 이원적 대처(Dyadic Coping) ····· 8
4.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 ····· 12
5. 성별 차이 ····· 14

III 연구 방법 ····· 15

1. 연구 참여자 ····· 15
2. 측정 변수 및 도구 ····· 16
   - 2.1 일과 가정 갈등 ····· 16
   - 2.2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 ····· 17
   - 2.3 결혼만족도 ····· 18
   - 2.4 통제변수 ····· 18
3. 자료 분석 ····· 19

IV 연구 결과 ····· 20

1.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 20
2. 위계적 회귀 분석 ····· 22

V 결론 및 논의 ····· 28

참고문헌 ····· 35

부록. 한국어 설문지 ····· 50

부록. 중국어 설문지 ····· 55

中文摘要 ·····59
Abstract ·····60

<표 차례>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5
<표 2> 연구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21
<표 3> 연구변수의 피어슨 상관계수 표 ·····22
<표 4>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표 ·····26

<그림 차례>

<그림 1>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소통의 조절효과 ·····27
<그림 2> 성별에 따른 공동적 대처의 조절효과 ·····2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며, 정부 주도의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많은 중국 여성이 가사노동에서 벗어나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다(刘爱玉 等, 2015). 이에 따라, 중국 도시 여성의 취업률이 1949년 7.5%에서 2019년 43.2%로 상승하였다(<중국여성발전개요>中国妇女发展纲要, 2017; 2019). 중국 여성의 직장 활동 참여 수준이 높아지면서 남자는 바깥 일을 하고 여자는 안살림을 하는 전통적인 구조에서, 남녀 모두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구조로 변화하였다. 맞벌이 가정, 특히 자녀 양육기의 맞벌이 가정은 일과 가정이라는 두 가지 삶의 중요한 영역의 역할을 병행하므로 전통적인 가정보다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며 일과 가정에 대한 스트레스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Xin et al., 2020).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 WFC)은 직장 역할과 가정 역할을 병행하기 어려울 때 느끼는 갈등이며(Kossek & Lee, 2017), 두 영역의 영향력에 따라 일-가정 갈등(WFC)과 가정-일 갈등(family-work conflict: FWC)의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가족 생활주기에서 중요한 단계(Aldous, 1990)로 부부에게 새로운 가정 역할을 부여하며 역할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때, 기존의 직장 역할 수행과의 갈등도 다른 시기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Yan & Zhou, 2016). 중국 맞벌이 가정이 지각하고 있는 일과 가정에 관한 스트레스와 갈등은 다음과 같다. 예컨대, 중국 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9.4시간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OECD: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y Cooperation, Employment Outlook, 2020; 王昱然, 2020). 이러한 "996"(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하는 야근 문화) 근무 상황에서 과거보다 업무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게 되면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감소하였고, 어린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출산 및 양육 관련 지원 정책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 자녀 정책 기조 하에 태어난 세대의 중국 맞벌이 부부는 일과 어린 자녀 그리고 노부모의 일상생활을 돌봐야 하므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중국의 자녀 양육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다. <중국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女职工劳动保护特别规定(草案)>, 2012)에 따르면 여성 직원은 출산 후 98일 동안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남편의 출산과 육아 휴직에 관한 국가 정책은 전무하다. 그리고 출산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중국 부부들은 한국 부부와 달리 육아 휴직이나 육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취학 전 아이 돌봄 자원이 부족하므로 0~3세 유아에게 돌봄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 센터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蒋永萍, 2019; 郑杨 & 张艳君, 2016), 해당 연령대 아이들의 돌봄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중국여성사회적지위조사>, <中国女性社会地位调查>, 2011). 따라서 부부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직장 활동을 하는 것간의 시간적 갈등이 매우 심한 상황이며 자녀 양육에 관한 경제적 지원 정책도 전무하기 때문에 육아 자원이 희소한 중국 맞벌이 부부는 자녀의 출산 때문에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다. 즉,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함에 따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더 힘든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다(徐浙宁, 2015).

현대 중국 남녀가 경험하는 다양한 일, 가정 스트레스와 갈등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중국인혼인보고>, <中国婚姻报告2021>, 2021). 중국 민정부(2019)의 통계 결과를 보면 2015년 중국의 이혼율은 0.28%이었고, 2019년에는 0.34%로 증가하였으며(<2019년중국민정사업통계보고>, <2019年民政事业发展统计公报>, 2019) 같은 시기 한국과 일본의 이혼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법원 조사에 따르면 이혼소송제기자의 65%의 연령은 주로 25세부터 40세 사이에 집중되었고(路蓉, 2014), 이혼소송제기자의 73.4%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중국사법빅데이터주제보고>, <中国司法大数据专题报告> , 2018). 이 연령대의 여성은 72%가 6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취업모(<중국여성사회적지위조사>, <中国女性社会地位调查> , 2011)였다. 또한, 여전히 남성의 직장 중심 성역할, 여성의 가정 중심 성역할과 같은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이 남아있으며(Li et al., 2020), 중국여성사회적지위조사(2011)에 따르면 아내가 주로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가정이 72.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3살 이하 영유아의 돌봄의 63.2%는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처럼 중국 여성은 자녀 돌봄과 노부모 부양의 가족 역할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쁘게 경제활동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에 따라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중국사회심리연구보고>, <中国社会心态研究报告>, 2019).

연구자들은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공동적인 일상 경험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Carroll et al., 2013; Bodenmann et al., 2007; Bodenmann, 2000: Randall, & Bodenmann, 2009에서 재인용; Van Steenbergen, et al., 2011). 나아가, 부부 공유 시간의 감소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의 감소로 이어져 소통의 질까지도 낮아질 수 있음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다(Bodenmann et al, 2007; McDaniel, & Coyne,

2016). 개인이나 배우자가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개인이 부부 관계에서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체계에 대한 소속감이나 “우리성(weness)”을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부 체계의 해체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원수경, 2016; Bodenmann et al., 2007; Randall, & Bodenmann, 2009). 따라서 현대 중국 부부들이 직장과 가족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와 역할 상충으로 받은 역할 압력으로 인한 갈등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 요인에 주목하는 것은 현대 중국 부부들의 결혼만족도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부부 관계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의 결혼 만족도에 개인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배우자나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의 영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상호의존 이론(interdependence theory)(Van Lange, & Balliet , 2015)과 스트레스의 교차(crossover)와 파급(spillover) 모델(Bakker & Demerouti., 2013; Xie et al., 2018)에 따르면, 부부는 생활 공동체로서 서로 일상을 공유하면서 상호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직업이나 가족 스트레스 경험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Li et al., 2020; Xie et al., 2017)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부부들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원도 공유한다. 즉, 일과 가정간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개인의 능력이나 자원으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지지나 도움을 받게 되면 혼자서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부부 차원의 일-가정 갈등 대처를 연구할 때 단순히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제공하는 도움과 지지를 일방향(one-way)으로 살펴보기보다는 부부가 모두 참여하고 공동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일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배우자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보호 요인으로서 개인의 일-가정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부적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개인과 배우자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dyadic coping)은 개인 혹은 개인과 배우자가 함께 부부 중 한 사람이 경험하는 스트레스(indirect dyadic stress) 혹은 부부가 공동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dyadic stress)를 직면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Bodenmann, 1995). 부부가 함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은 개인에게 부부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부부간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Bodenmann, 1995, 1997, 2005). 그러나 아시아 문화권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타인에게 도움이나 지지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서구 문화권 사람들보다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지지와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을 더 적

게 하는 경향이 있다(Kim et al., 2008). 그렇기 때문에 중국 맞벌이 근로자는 일-가정 갈등을 경험할 때 배우자와 함께 대처하기보다 스스로 대처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2021年中国职场压力调查报告>, 2021). 한편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 맞벌이 근로자가 선호하는 스트레스 대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배우자로부터 지지와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 있어 소외된다고 느끼게 되어(Bodenmann et al., 2007) 부부간 감정이 틀어지는 것은 중국 부부들의 이혼 이유 중에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中国司法大数据专题报告之离婚纠纷>, 2018).

따라서 일-가정 갈등 상황에서 배우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배우자로부터 지지와 도움을 받고 배우자와 함께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개인의 일-가정 스트레스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배우자와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중국 맞벌이 가족들이 일-가정 갈등 상황에서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맞벌이 남녀의 일과 가정 간의 갈등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배우자와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조절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배우자와 함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은 배우자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공유하고 배우자로부터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행동도 포함하고 있다(Hilpert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배우자와 함께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은 Bodenmann(1995, 1997, 2005)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이론과 스트레스의 체계적 교환 모델(STM: Systemic transactional model)에 근거하여 스트레스 소통, 배우자의 부정적 이원 대처, 그리고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를 포함한 3가지 하위 영역의 조절효과를 모두 검증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전통적인 성역할 관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중국 맞벌이 근로자는 성별에 따라 일-가정 갈등 및 가정-일 갈등 수준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으며(刘浈 等, 2020; 郑颖娴 等, 2015),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일-가정 갈등 및 가정-일 갈등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서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1. 맞벌이 남녀의 일-가정 갈등 및 가정-일 갈등은 결혼 만족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1-2.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맞벌이 근로자의 일-가정(가정-일) 갈등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1-3.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맞벌이 근로자의 일-가정(가정-일) 갈등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일-가정 갈등

개인이 소유한 자원(예를 들어, 시간, 행동 방식, 에너지 등)은 제한적이다 (Katz & Kahn, 1978).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이 방해를 받아, 역할 스트레스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직장과 가정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활동을 할 때 한 영역(직장)에 투입하는 자원이 너무 많으면 다른 한 영역(가정)에서 활동을 할 때 자원이 부족함으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은 사람이 직장에서 맡은 역할과 가정 내에서 맡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역할 상충으로 인한 압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Greenhaus & Beutell, 1985; Kossek & Lee, 2017). 일-가정 갈등은 일과 가정 두 분야의 영향력에 따라 일-가정 갈등(work-to-family conflict: WFC)과 가정-일 갈등(family-to-work conflict: FWC),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가정 갈등은 일이나 직장 생활이 가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가정-일 갈등은 가정 역할 수행이 개인의 직장 업무 수행이나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야근을 많이 하면(업무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가족 내에 '남편'이나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서(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아픈 배우자와 병원에 같이 가주는 것 등등) 일-가정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아내의 경우에는 집안일이나 자녀의 양육자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직장인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져 직장 업무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할 때 가정-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가정 갈등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

지금까지 일-가정 갈등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의 스트레스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일-가정 갈등이 개인의 직장(개인의 이직 의도, 직업 만족도 등), 개인의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신체적 증상, 식습관, 심리적 안정감과 심리적 웰빙 등) 그리고 개인의 삶의 만족도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Allen & Armstrong, 2006; Alle et al., 2000; Grandey &

Cropanzano, 1999; Kossek et al., 2006; Kossek & Lee, 2017; Kossek & Ozeki, 1998; Lu et al., 2017; Netemeyer et al., 1996 ; Obrenovic et al., 2020).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스트레스 경험보다 개인이 속하는 사회적 관계를 고려해서 사회 관계망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부부 관계이다. 일-가정 갈등이 부부 결혼 만족도의 부정적 예측요인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임인혜 & 유성경, 2020; Allen et al., 2000; Carroll et al., 2013; Kossek & Lee, 2017; Li et al., 2020; Paulin et al, 2017). Allen(2000)과 동료들이 1977년부터 1998년까지의 일-가정 갈등과 관련된 논문들로 실시한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연구의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Li et al., 2020; 陈学军 等 , 2013 ; 夏贤吉, 2017; 郑颖娴 等, 2015; 周春燕 等, 2018). 郑颖娴(2015)과 동료들이 북경시(北京市)에 거주하는 신혼기 부부의 일-가정 갈등과 부부 결혼 생활의 질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남편의 일-가정 갈등이 자신의 결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남편의 가정-일 갈등은 자신과 아내 모두의 결혼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경우에는 자신의 가정-일 갈등만이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郑颖娴 等, 2015). 그리고 陈学军와 동료들(2013)이 경찰 161명을 대상으로 일-가정 갈등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를 탐색한 결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직장 생활을 방해(Family Work Interference: FWI)할 때 결혼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가정과 가정-일 갈등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한, 일-가정 갈등과 가정-일 갈등의 선행요인이 일인지 가정인지에 따라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처 방식도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할 점은 연구할 때 연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가정 갈등의 영향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기혼이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장인은 가족 내에서 배우자 역할과 부모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미혼이거나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직장인보다 더 많은 역할 책임(Ford, Heinen, & Langkamer, 2007) 및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일-가정 갈등의 경험도 다를 수 있다(Byron, 2005; Michel et al., 2011). 그리고 부부가 모두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일-가정 갈등 경험도 분명히 다를 것이다(Higgins & Duxbury, 1992). Higgins와 Duxbury(1992)가 맞벌이 남성과 외벌이 남성의 일-가정 갈등 경험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남성의 일 갈등과 가정 갈등의 상관관계가 외벌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맞벌이 남성의 일 갈등은 외벌이 남성의 일 갈등보다 더 심한 일-가정 갈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에 외벌이 남성은 가정 갈등과 일-가정 갈등간의 관계가 맞벌이 남성의 가정 갈등과 일-가정 갈등간의 관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Higgins & Duxbury, 1992). 그러나 일-가정 갈등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를 탐색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직업이나 취업 상태만 고려하고 배우자의 직업이나 취업 상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거나 연구 참여자의 육아 상황을 간과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부부 모두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우선, 0-6세의 영유아기는 애착 형성과 성격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고 생활자립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아동이나 청소년보다 더 길다. 따라서 개인의 직장 역할 수행과 가족 역할 수행 간의 시간적 갈등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중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0-3세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蒋永萍, 2019; 郑杨 & 张艳君, 2016). 따라서 부부가 어린 자녀를 비용 부담이 더 큰 사립 기관에 보내거나 아이돌보미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맞벌이 가족에게 큰 경제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됨으로써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감소하는(徐浙宁, 2015)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국 맞벌이 근로자의 일-가정 갈등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 주목하고 일-가정 갈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일-가정 갈등에 대한 대처: 개인 대처(Individual Coping)와 부부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Dyadic Coping)

중국 맞벌이 근로자의 결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가정 및 가정-일 갈등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중국 맞벌이 근로자가 일-가정과 가정-일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보호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주로 개인의 측면에서 사용하는 대처(예: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 개인의 성격 특성 등)에 초점을 둔 연구가 다수였다(임인혜 & 유성경, 2020; Kossek & Lee, 2017; Michel, 2011; Rantanen, 2011; Rotondo et al., 2003).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일-가정(가정-일) 갈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여겨진다(Kossek &

Lee, 2017; Michel, 2011). 즉,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예: 회피, 긍정화,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은 일-가정 갈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절효과가 있다(임인혜, 유성경, 2020; Rantanen, 2011).

그러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부부의 삶은 서로 교차된 것이며(Miller, R. S., 2011; Bodenmann, 1995) 개인의 일-가정 갈등 경험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사건일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부 관계와 파트너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부 단위 체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Bodenmann(2007; 2009)에 따르면 부부 관계 속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아닌 부부 체계 외의 사건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선 개인이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부부의 공동 경험(joint experience, togetherness)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자기 노출(self-disclosure)과 배우자와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dyadic coping)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과 배우자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수준은 낮아지고 소극적인 상호작용과 회피(withdrawal)가 증가하며 의사소통의 질도 낮아진다. 이는 개인의 신체적 문제와 심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적인 성격 특성을 더 많이 표현하게 될 수도 있다 (Bodenmann et al., 2007; Miller, R. S., 2011; 원수경, 2016).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이 부부관계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배우자에게 자신의 욕구를 더 적게 표현하게 되면 부부 체계가 해체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Bodenmann, 2005; 2007; 2009).

개인의 능력이나 자원으로 해결되지 않은 개인의 미해결 스트레스(unresolved individual stress)가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 개인과 배우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원적 스트레스(dyadic stress)라고 한다(Bodenmann, 1995, 1997; Revenson, Kayser & Bodenmann, 2005). 즉,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너무 높거나 개인이 소유한 자원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스트레스는 계속 남아서 결국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Bodenmann, 1995). 예를 들면 남편이 직장에서 업무로 받은 스트레스가 퇴근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아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면 그 스트레스는 아내에게도 파급될(stress spillover) 수 있다(Falconier, Randall, & Bodenmann, 2016).

따라서 부부가 경험하는 일-가정 및 가정-일 갈등은 부부가 공동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스트레스" 이므로 부부가 서로 자원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과 가정 갈등은 개인만의 스트레스 경험이 아니라 부부체계의 공동의 스트레스 경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만이 아니라 배우자가 소유한 자원 혹은 부부 공동의 자원을 활용하여 함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Bodenmann, 1995, 1997; Revenson,

Kayser & Bodenmann, 2005; Falconier, Randall, & Bodenmann, 2016).

배우자와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dyadic coping)는 개인 또는 개인과 배우자가 함께 부부 중 한 사람이 경험하는 스트레스(indirect dyadic stress) 혹은 부부가 공동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dyadic stress)를 직면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Bodenmann, 1995). 따라서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는 개인 차원의 스트레스 대처보다 배우자와 서로 상호의존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Bodenmann, 1995, 1997; Revenson et al., 2005).

Bodenmann의 체계적 교환 모델(Systemic Transactional Model: STM)은 (Bodenmann, 1995, 1997; Falconier et al., 2016; Revenson et al., 2005) Lazarus(1984)의 스트레스 이론과 Bertalanffy(1969)의 체계 이론을 참고하여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 방식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이다. 이 모델은 관계 중심 대처 모델(RFCM: Relationship-Focused Coping Model)과 공동적 대처 모델(CCM: The Communal Coping Model) 각각이 강조하는 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계 중심 대처 모델(RFCM)에서는 부부가 관계를 유지하고 부부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스트레스 받은 개인을 보호하고 지지와 도움을 제공해주고 양보해주는 것이 강조된다. 체계 교환 모델(STM)에서는 여기서 나아가 긍정적 이원 대처와 부정적 이원 대처 방식을 모두 살펴보아 배우자의 대처 행동을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적 대처 모델(CCM)에서는 부부가 스트레스 상황을 개인의 문제보다 부부 공동의 문제로 지각하고 함께 노력해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체계 교환 모델(STM)에서는 개인의 스트레스 소통과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 방식을 통해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odenmann의 체계 교환 모델(STM)를 사용하여 중국 맞벌이 근로자와 배우자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가 개인의 결혼 만족도에 대한 일-가정 갈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STM은 부부는 상호 의존하는 호혜적인 공동체(reciprocally influencing unit)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과 배우자 간의 상호작용과정으로 본다(Bodenmann, 1995; 1997; Revenson et al., 2005). STM에 따르면,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너무 높거나 개인이 소유한 자원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면 개인에게 남아있는 스트레스가 개인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소통(stress communication)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상대방은 받은 '정보'에 대해서 인식하고 반응(대처)한다(Bodenmann, 1995; 1997; Revenson et al., 2005).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과 배우자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가 진행될 수 있다.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dyadic coping strategies)은 부부가 함께 스트레스

에 대처할 때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행동의 특성에 따라서 긍정적 이원 대처 방식(positive dyadic coping), 부정적 이원 대처 방식(negative dyadic coping) 그리고 공동적 이원 대처 방식(common dyadic cop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긍정적인 이원 대처 방식은 정서 중심 지지적 이원 대처(Emotion-focused supportive dyadic coping), 문제 중심 지지적 이원 대처(Problem-focused supportive dyadic coping), 그리고 위임적 이원 대처(Delegated dyadic coping)로 구분할 수 있다.

정서 중심 지지적 이원 대처(Emotion-focused supportive dyadic coping)는 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배우자가 안정된 정서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Bodenmann, 1995; Falconier et al., 2016; Revenson et al., 2005). 예를 들어, 배우자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다. 문제 중심 지지적 이원대처(Problem-focused supportive dyadic coping)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해결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Bodenmann,1995, 1997; Falconier et al., 2016; Revenson et al., 2005). 예를 들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안해 주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들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위임적 이원 대처(Delegated dyadic coping)는 배우자가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할 일을 도와주는 방식을 의미한다((Bodenmann, 1995, 1997; Falconier et al., 2016; Revenson et al., 2005). 보통 구체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다(Bodenmann, 1995).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의 업무 스트레스 경감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집안일과 육아를 더 많이 분담하는 것이다.

부정적 이원 대처는 주로 적대적 이원 대처(hostile dyadic coping), 양면적 이원 대처(ambivalent dyadic coping), 그리고 피상적 이원 대처(superficial dyadic coping)로 구분할 수 있다. 적대적 이원 대처(hostile dyadic coping)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없는 것을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다소 공격성을 보이는 대처 방식을 의미하며 양면적 이원 대처(ambivalent dyadic coping)는 배우자의 스트레스 적응에 도움을 제공했지만, 실제로 도와주려는 의도가 없는 대처 방식을 의미한다(Falconier et al., 2016; Revenson et al., 2005). 즉, 양면적 이원 대처를 사용할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배우자가 자신에게 도움을 제공을 해주지만 그 것은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를 도와주고 싶어서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피상적 이원 대처(superficial dyadic coping)는 상대방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도움을 제공해주었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성의나 진심 없이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Falconier et al., 2016; Revenson et al., 2005).

스트레스 상황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도움을 제공해주는 일방 대처 방식과 달리 공동적 이원 대처 방식(common dyadic coping)은 부부 모두 스트레스 대처 과정에 비슷한 수준의 시간이나 자원을 투입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Bodenmann, 1995). 공동적 이원 대처 방식은 주로 부부가 모두 직접적으로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으며 스트레스 해결에 있어서 같은 목표나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한다(Bodenmann, 1995). 예를 들어, 부부가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부모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문제 중심 공동적 이원 대처-Problem-focused common dyadic coping)이 있다. 또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고충을 들어주고 감정을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정서 중심 공동적 이원 대처--Emotion-focused common dyadic coping).

4.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

개인과 배우자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한 연구는 서구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들의 결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검증되었다(Bodenmann, 1995, 1997, 2005; Falconier, et al., 2015; Hiefner, 2021; Rottmann et al., 2015). 예컨대, 아내가 유방암에 걸린 경우(Cai et al., 2021; Rottmann et al., 2015)나 부부가 유산을 경험하는 경우(Hiefner, 2021), 부부가 긍정적, 공동적 이원 대처 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서로를 더 가깝게 느껴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odenmann, 1995, 1997; Hiefner, 2021). 배우자와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개인의 결혼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이 개인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다(Falconier et al., 2013; Fallahchai et al., 2019; Merz et al., 2014). 배우자가 제공해주는 지지적 이원 스트레스 대처(supportive dyadic coping by partner)와 배우자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소통(stress communication by partner)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지각할수록 개인이 경험하는 외부 스트레스(예: 경제적 스트레스, 직업 스트레스, 여가 시간 부족 등)가 개인의 부부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한다(Merz et al., 2014). 그리고 Falconier(2013)와 동료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라틴

계 이민 부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주 여성의 이민 스트레스(immigration stress)가 개인과 배우자의 결혼 만족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배우자(이주 남성)가 제공해주는 지지적 이원 대처(supportive dyadic coping)와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 방식(common dyadic coping)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이주 남성에게는 부부가 함께 노력(예: 같이 산책하거나 기도하기 등)해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거나 함께 문제 해결책을 찾는 공동적 이원 대처 방식이 오히려 이민 스트레스와 이주남성과 배우자의 결혼 만족도간의 부적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Falconier et al., 2013). 이처럼 개인과 배우자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스트레스와 결혼 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할 때 구체적인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연구자의 관심사에 따라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 중 특성이 비슷한 한두 가지 하위 방식을 선택하거나 모든 대처 방식의 측정 점수를 합하여 한 변수로 분석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Falconier et al., 2013; Fallahchai et al., 2019; Merz et al., 2014). 특히,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배우자가 제공해주는 지지적 이원 대처와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 방식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Falconier et al., 2013; Fallahchai et al., 2019; Merz et al., 2014; 원수경, 2016; 2020), 배우자가 제공하는 부정적 이원 대처와 개인과 배우자의 스트레스 소통의 역할은 간과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부부간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는 부부간 상호작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의 시작이 되는 스트레스 소통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부부간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가 단순히 배우자로부터 지지와 도움을 받는 것이라기보다 중립적인 과정인만큼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행동뿐 아니라 부정적인 대처 행동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연구할 때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부부 체계 내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전면적인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모델을 적용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주로 부부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경험하는 상황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의 결혼 만족도는 이러한 삶의 중요한 큰 사건들보다 미시적인 사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Bodenmann et al., 2006; Karney & Bradbury, 1995), 부부가 특정한 삶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더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도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스트레스 사건이나 질병 상황이 아닌,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가정 갈등 상황에서도 배우자와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Bodenmann(1995, 1997, 2006)의 체계적 교환 모델(STM)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개인의 일-가정 갈등과 결혼 만족도의 부적 관계를 완화시키거나 심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5. 성별의 영향

일-가정 갈등 및 가정-일 갈등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서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를 탐색할 때 성별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가정 및 가정-일 갈등 경험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은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Byron, 2005; Cinamon & Rich, 2002; Yoo, 2022). 일-가정 갈등 및 가정-일 갈등은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이 상충되어 나타나는 역할 압력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적 성역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전통적인 성역할 관점은 남성에게 바깥일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여성에게는 안살림을 하는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에, 여성의 직장 활동과 커리어 개발에 가정역할이 미치는 영향이 남성보다 더 클 수 있다(Kaufman & Uhlenberg, 2000; Maume, 2006; Zhao et al., 2011). 예컨대 여성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직장 생활을 포기하게 될 수 있는 반면에 남성의 커리어는 아버지 역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Kaufman & Uhlenberg, 2000; Maume, 2006). 따라서 직장영역과 가정영역간의 갈등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게 지각할 수 있으며(Byron, 2005; Cinamon & Rich, 2002; Yoo, 2022) 일-가정 갈등 및 가정-일 갈등을 연구할 때 성별 차이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성별에 따라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Falconier(2013)와 동료들의 연구에서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 방식이 라틴계 이주 여성의 이민 스트레스와 결혼 만족도의 부적 관계를 완화시킨 반면에, 이주 남성의 이민 스트레스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강화하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Hilpert(2016) 등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남성보다 여성이 지각하는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수준이 자신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일-가정 및 가정-일 갈등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해 한 명 이상의 0~6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국 맞벌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한 가정의 부부 두 사람 모두가 아닌, 각 가정 당 희망자에 한하여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국 항주(杭州) 지역의 유치원, 맞벌이 부부들의 온라인 모임 사이트, 웨이보(중국 SNS 사이트),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섭외한 총 661명의 연구 참여자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무작위로 응답한 17명,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은 사람 73명과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사람 89명을 제외하고 총 483명이 설문을 완료하였다. 자녀의 나이가 6세를 초과한 사람 9명, 현재 미취업 상태인 응답자 39명을 제외한 432명의 응답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432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성	181(41.90)	자녀의 기관 돌봄 여부	예	338(78.06)
	여성	251(58.10)		아니요	95(21.94)
연령	20대	111(25.69)	결혼 지속 기간	3년 미만	48(11.11)
	30대	253(58.56)		3~7년	160(37.04)
	40대	65(15.05)		7~11년	128(29.63)
	50대	3(0.69)		11년 이상	96(22.22)
최종학력	중졸 이하	65(15.05)	주 근무 시간	40시간 및 이하	244(56.48)
	고졸	121(28.01)			
	전문대졸	117(27.08)			
	대졸	113(26.16)		40시간 이상	188(43.52)
	대학원	16(3.70)			
취업 상태	사기업 정규직	175(40.51)	자녀 수	1명	248(57.41)
	공기업 정규직	127(29.40)			
	비정규직 풀타임	40(9.26)		2명	183(42.36)
	파트타임	11(2.55)			
	프리랜서	90(20.83)		3명	1(0.23)
월 소득	2000위안(약35만원) 이하				18(4.17)
	2001-4999위안(약35-85만원)				168(38.89)
	5000-7999위안(약85-137만원)				153(35.42)
	8000위안(약137만원) 이상				93(21.53)

연구 참여자는 남성 181명(41.90%), 여성 251(58.10%)로 구성되었다. 평균연령은 29.07세(표준편차=6.54)로 20대 111명(25.69%), 30대 253명(58.56%), 40대 65명(15.05%), 50대 3명(0.69%)이다. 학력을 살펴보면 종졸 이하 65명(15.05%), 고졸 121명(28.01%), 전문대졸 117명(27.08%), 대졸 113명(26.16%), 대학원졸 16명(3.70%)으로 나타났다. 취업 상태는 사기업의 정규직원이 175명(40.51%)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기업 정규직원 127명(29.40%) 및 프리랜서 90명(20.83%)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시간의 경우 244명(56.48%)의 주 평균 근무 시간은 40시간 이하로 나타났으며 188명(43.52%)은 4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보고하였다. 개인의 월 소득은 2000-4999위안(약35-85만원)을 번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168명(38.89%)으로 가장 많았고, 5000-7999위안(약85-137만원)을 번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153명(35.42%), 8000위안 이상(약 137만원) 93명(21.53%), 2000위안 이하(약 35만원) 18명(4.17%) 순이었다. 절반 이상의(248명, 57.41%) 참여자가 자녀를 1명만 키우고 있었으며, 자녀가 2명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183명(42.36%)이었다. 자녀의 일상 돌봄에 관해서는 338명(78.06%)이 기관의 돌봄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혼인 상태를 살펴보면 혼인 지속 기간이 3년 이상 7년 미만의 경우가 160명(37.04%)으로 가장 많았으며 7년 이상 11년 미만인 경우가 128명(29.63%)이었다. 최근 3개월은 포함하지 않은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175명(40.42%)이 비교적 만족한다고 보고했고, 매우 만족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도 134명(30.95%)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참여자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 측정 변수 및 도구

2.1 일-가정 및 가정-일 갈등

일-가정 및 가정-일 갈등의 측정은 Grzywacz와 Marks(2000)가 개발한 Work-Family Spillover Scales 척도를 曾练平(2013)과 동료들이 번안한 척도를 활용했다. 이 척도는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긍정적 영향과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긍정적 영향을 각각 측정하는 총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4문항,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3문항,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4문항,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3문항을 포함하여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이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일-가정 및 가정-일 갈등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과 가정간 부정적인 상호영향이 개인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서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일-가정 갈등) 및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가정-일 갈등)을 측정하는 2개의 하위척도(8개 문항)를 사용하였다. 일-가정 갈등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는 '집으로 돌아가도 일에 관한 문제와 고민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나는 바쁜 업무 때문에 가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가정-일 갈등 하위 척도는 '개인 문제와 가족 문제가 나를 근무 시간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든다', '나는 가정 역할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曾练平(2013)와 동료들의 연구에서 두 하위척도의 내적 적합도(Cronbach's α)는 .77 및 .7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일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하위척도의 Cronbach’s alpha가 .87,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하위척도의 Cronbach’s alpha는 .91이었다. 두 하위 척도를 통합해서 검증한 Cronbach's α의 값은 .91로 확인되었다.

2.2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

이원적 대처 방식은 Bodenmann(2008)이 개발한 Dyadic Coping Inventory(DCI) 척도를 Xu(2016)와 동료들이 타당화한 중국판 이원적 대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DCI는 Bodenmann(2008)이 자신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이론에 근거하여 만든 사람들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스트레스 소통 4문항, 지지적 이원 대처 5문항, 위임적 이원 대처 2문항, 부정적 이원 대처 4문항, 공동적 이원 대처 5문항 그리고 배우자와의 이원적 대처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 2문항을 포함하여 총 39문항으로 구성된 5점(1점: '매우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 척도다. 그중에 공동적 이원 대처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하위척도는 본인의 행동뿐 아니라 본인이 지각하는 상대방의 행동 수준을 각각 측정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으면 해당 이원 대처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DCI의 5가지 하위척도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지지적 이원 대처, 위임적 이원 대처 및 공동적 이원 대처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우, 조절변수들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속변수의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본인이 지각한 스트레스 소통, 본인이 지각한 배우자의 부정적 이원 대처 그리고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를 측정하는 하위척도 3개를 사용하였고 각 하위척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하위척도별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스트레스 소통: '나는 내가 배우자의 실

질적인 지지, 조언, 도움에 고마워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나는 나에게 문제가 있거나 일이 잘 안될 때 나는 행동으로 배우자에게 알린다' ; (2) 개인이 지각한 배우자의 부정적 이원 대처: '나의 배우자는 내가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지 못할 때 나를 비난한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의 배우자는 모르는 척하는 경향이 있다' ; (3)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 '우리는 문제에 함께 대처하며 확실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함께 음악을 듣거나 목욕을 하거나, 마사지 같은 것으로 서로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연구는 일과 가정의 갈등 상황에서 맞벌이 근로자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 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항 앞에 '다음은 본인과 배우자가 일과 가정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사용하는 대처 방식에 대해 측정하는 내용입니다'라는 가이드어를 사용해서 설문 응답의 배경으로 연구 참여자와 배우자가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사용하는 장면을 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소통 하위척도의 내적 적합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고 부정적 이원 대처는 .81, 그리고 공동적 이원 대처는 .94로 나타났다.

2.3 결혼만족도

결혼 만족도는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았을 때, 나의 결혼 생활은 ____점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개인이 자신의 전반적인 결혼 생활에 대해 점수를 1점(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10점(매우 만족한다)까지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결혼 생활을 평가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혼인 지속 기간, 취업 상태, 주 근무 시간, 월 소득, 자녀의 수 그리고 자녀가 기관의 돌봄을 받는지 여부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0, 여성은 1로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로 나눴다.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는 1, 고등학교 졸업은 2, 대학교(2-3년제)졸업은 3, 대학교(4년제 및 이상)졸업은 4, 그리고 대학원 졸업 이상은 5로 코딩하였다. 혼인 지속 기간은 3년 미만인 경우는 1, 3-7년은 2, 7-11년은 3, 11년 이상은 4로 측정하였다. 취업 상태는 사기업 정규직은 1, 공기업 정규직(공무원 포함)은 2, 비정규직 풀타임은 3, 파트타임은 4, 프리랜서(자유영업자, 작가 등)는 5로 코딩하였다. 하루에 평균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 근무 시간은 40시간 및 이하=0, 40시간 이상=1로 측정하였다. 월 소득은 중국 통계청의 <2020년 국민 수입 및 지출 현황>(<2020年居民收入和消费支出情况>, 2020)을 참고하여 2000위안(약 35만원

미만) 이하, 2000-4999위안(약 35-85만원), 5000-7999위안(약 85-137만원), 8000위안 이상(약 137만원 이상)으로 나눴으며 각 단계는 1점부터 5점까지로 코딩하였다. 자녀의 수는 1명, 2명, 3명으로 구분해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기관의 돌봄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1, 아니요=2로 측정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0-6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국 맞벌이 부부들의 일-가정 갈등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stata 16.0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주로 사용하는 변인(결혼 만족도, 일-가정 갈등 수준,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stata를 사용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들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변인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에 피어슨(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일-가정 갈등, 가정-일 갈등, 성별,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중국 맞벌이 근로자의 결혼 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 일-가정 갈등 및 가정-일 갈등 변수를 투입하여 결혼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2단계에서는 일-가정 및 가정-일 갈등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서 3가지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단계에서 결혼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던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 (일-가정 갈등/가정-일 갈등×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투입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일-가정 갈등/가정-일 갈등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가정 갈등/가정-일 갈등×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성별의 3요인 상호작용항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및 조절변수에 대한 중심화(중심화 값=각 변수의 통계값-변수의 평균값)를 실시한 후에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중국 맞벌이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간 갈등 경험, 그들 자신과 배우자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 그리고 결혼 만족도의 전반적인 특성 및 성별 차이는 <표 2>와 같다.

일과 가정 갈등 유형 중 *일-가정 갈등* 각 문항의 응답 가능 범위 1-5점에서 남성의 평균 *일-가정 갈등* 수준은 2.82점(표준편차=.83)으로 여성(평균=3.02, 표준편차=.8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t=-2.30, p<.05). '가정-일 갈등'의 경우, 남성이 (평균=2.55, 표준편차=.80) 여성보다 (평균=2.69, 표준편차=.91) 낮은 수준의 가정-일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개인과 배우자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한 응답 가능 범위는 각각 1-5점이며 그중에서 개인의 *스트레스 소통*(평균$_{남성}$=3.68, 표준편차$_{남성}$=.74; 평균$_{여성}$=3.69, 표준편차$_{여성}$=.79)과 본인이 지각하는 배우자의 *부정적 이원 대처 방식*(평균$_{남성}$=2.69, 표준편차$_{남성}$=.84; 평균$_{여성}$=2.75, 표준편차$_{여성}$=.78) 에서는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이 지각한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 방식*은 평균 3.77점(표준편차=.73)으로 여성(평균=3.54, 표준편차=.80)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결혼 만족도의 응답 가능 범위는 1-10점이었으며 남성의 결혼 만족도가 평균 8.25점(표준편차=1.98)으로 여성(평균=7.06, 표준편차=2.3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t=4.95, p<0.001).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남성이 보고한 결혼 만족도 및 긍정적인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여성이 보고한 수준보다 높았으며, 남성의 일-가정 및 가정-일 갈등 경험 수준이 여성보다 낮았다. 일-가정이나 가정-일 갈등 상황에서 남성은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에 있어* 가장 높은 점수를 보고한 반면, 여성은 개인의 *스트레스 소통*에 있어 가장 높은 점수를 보고했다.

<표 2> 연구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N*=432

변수	문항 수	점수 범위	남성 (n=181)	여성(n=251)	합계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일-가정 갈등	4	1-5	2.82(.83)	3.02(.85)	2.94(.85)	-2.30*
가정-일 갈등	4	1-5	2.55(.80)	2.69(.91)	2.63(.87)	-1.65
스트레스 소통	4	1-5	3.68(.74)	3.69(.79)	3.68(.77)	-.20
부정적 이원 대처	4	1-5	2.69(.84)	2.75(.78)	2.72(.81)	-.79
공동적 이원 대처	2	1-5	3.77(.73)	3.54(.80)	3.54(.83)	2.89**
결혼 만족도	1	1-10	8.25(1.98)	7.06(2.33)	7.56(2.26)	5.58***

*** *p<0.001*, ** *p<0.01*, * *p<0.05*,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수, 조절변수 그리고 중속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본 연구는 Cohen(1988)의 논문을 참고하여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10 정도일 때 약한 상관관계, .30 정도일 때 보통 상관, .50 이상일 때 강한 상관관계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기준에서 본 연구의 주 변수들은 대부분 보통이나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첫째, 중국 맞벌이 근로자들의 결혼 만족도는 개인의 *스트레스 소통*(r=.39, *p*<.001),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r=.45,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개인의 *스트레스 소통*은 개인이 지각하는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r=.76, *p*<.001)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일과 가정 갈등에 대해 배우자와 많이 소통하고 배우자가 제공해주는 도움과 지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의 수준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고 개인의 결혼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개인의 일-가정 갈등은 개인의 *스트레스 소통*(r=-.10, *p*<.01),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r=-.21, *p*<.001), 그리고 개인의 결혼 만족도(r=-.28, *p*<.001)와 모두 보통 정도의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개인의 가정-일 갈등도 개인의 *스트레스 소통*(r=-.13, *p*<.001),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r=-.24, *p*<.001), 그리고 개인의 결혼 만족도(r=-.32, *p*<.001)와 모두 보통 정도의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에 개인이 지각한 배우자의 *부정적 이원 대처*와 개인의 일-가정 갈등 및 가정-일 갈등의 피어슨 상관계수 값은 r=.37(*p*<.001), r=.51(*p*<.001)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과 가정 스트레스를 강하게 지각하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부정적 이원 대처를* 더 강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3> 연구변수의 피어슨 상관계수 표

변인	(1)	(2)	(3)	(4)	(5)	(6)
(1) 일-가정 갈등	1					
(2) 가정-일 갈등	.64***	1				
(3) 본인의 스트레스 소통	-.10**	-.13***	1			
(4) 배우자의 부정적 이원 대처	.37***	.51***	-.20***	1		
(5)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	-.21***	-.24***	.76***	-.26***	1	
(6) 결혼만족도	-.28***	-.32***	.39***	-.35***	.45***	1

*** $p<.001$, ** $p<.01$

2. 위계적 회귀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맞벌이 근로자들의 일-가정 및 가정-일 갈등 경험이 개인의 결혼 만족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관계에서 개인과 배우자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성별의 조절효과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Bodenmann(1995; 1997; 2005)의 STM 모델에서 제시한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3가지 대표적인 하위 영역(스트레스 소통, 부정적 이원 대처, 공동적 이원 대처)을 조절변인으로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1단계에서는 일-가정 갈등 및 가정-일 갈등이 각각 중국 맞벌이 근로자의 결혼 만족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 일-가정 갈등 및 가정-일 갈등을 모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면, 수정결정계수(adjusted R^2)가 .15로 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중국 맞벌이 근로자의 결혼 만족도 변량을 15% 설명했다(F=7.86, $p<.001$). 우선, 중국 맞벌이 근로자들이 지각하는 가정-일 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들의 결혼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B=-.15, β=-.24, $p<.001$). 한편, 그들이 지각하는 일-가정 갈등의 수준과 자신의 결혼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B=-.07, β=-.05, $p>.05$).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의 성별(B=-.92, β=-.20, $p<.001$)만 결혼 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 만족도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가정-일 갈등 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서 3가지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가정-일 갈등×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수정결정계수(adjusted R^2)가 .31로 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가 중국 맞벌이 근로자의 결혼 만족도 변량의 31%를 설명했다 (F=14.12 p<.001).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여성이 맞벌이 남성보다 결혼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87, β=−.19, p<.001). 참여자들의 *부정적 이원 대처*(B=−.52, β=−.18, p<.001) 수준과 최종학력(B=−.17, β=−.08, p=.089<.1)이 높을수록 개인의 결혼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개인의 *스트레스 소통*(B=.61, β=.21, p<.01)과 개인이 지각한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B=.53, β=.18, p<.01)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결혼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 가정−일 갈등×부정적 이원 대처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7, β=−.03, p>.05). 즉, 개인이 지각하는 배우자의 *부정적 이원 대처* 수준에 따라 자신의 가정−일 갈등와 결혼 만족도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다.

스트레스 소통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정결정계수(adjusted R^2)가 .33로 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가 중국 맞벌이 근로자의 결혼 만족도 변화에 대해 33%를 설명할 수 있었다 (F=14.88 p<.001). 각 변수들의 회귀계수의 유의 수준을 살펴보면, 맞벌이 여성의 결혼 만족도가 맞벌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B=−.86, β=−.19, p<.001), 가정−일 갈등(B=−.36, β=−.55, p<.01), *부정적 이원 대처*(B=−.53, β=−.19, p<.001) 수준이 높아지면 개인의 결혼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지각한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B=.45, β=.15, p<.05) 수준이 높아지면 개인의 결혼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 가정−일 갈등×스트레스 소통의 회귀계수는 B=.08(β=.5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개인이 지각하는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가정−일 갈등 과 결혼 만족도의 부정적 관계가 완화될 수 있다.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정결정계수(adjusted R^2)가 .33로 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가 중국 맞벌이 근로자의 결혼 만족도 변화에 대해 33%를 설명할 수 있었다 (F=15.01 p<.001). 각 변수들의 회귀계수의 유의 수준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맞벌이 남성의 결혼 만족도가 맞벌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B=−.87, β=−.19, p<.001). 그리고 가정−일 갈등(B=−.37, β=−.57, p<.01), *부정적 이원 대처*(B=−.53, β=−.19, p<.001) 수준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맞벌이 근로자의 결혼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 소통*(B=.63, β=.21, p<.01)을 많이 하는 맞벌이 근로자는 개인의 결혼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 가정−일 갈등×공동적 이원 대처의 회귀계수는 B=.08(β=.5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개인이 지각하는 자

신의 *스트레스 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가정-일 갈등 과 결혼 만족도의 부정적 관계가 완화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소통* 및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가 가정-일 갈등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가정-일 갈등×스트레스 소통(공동적 이원 대처)×성별 3요인 상호작용항을 사용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이 스트레스 소통의 조절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수정결정계수(adjusted R^2)가 .32로 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가 중국 맞벌이 근로자의 결혼 만족도 변화에 대해 32%를 설명할 수 있었다 (F=14.44 p<.001). 각 변수들의 회귀계수의 유의 수준을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B=-1.60, β=-.35, p<.001)에 따라 결혼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났고, 남성보다 여성의 결혼 만족도가 더 낮았다. *가정-일 갈등*(B=-.18, β=-.28, p<.01), *부정적 이원 대처*(B=-.52, β=-.18, p<.001)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결혼 만족도도 유의미 하게 낮았다. 개인이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B=.47, β=.16, p<.05) 수준을 더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결혼 만족도가 더 높았다. 독립변수, 조절변수 및 성별의 3요인 상호작용항 가정-일 갈등×스트레스 소통×성별의 회귀계수가 B=.02(β=.26), p=.06<.1 수준에서 결혼 만족도와 근사적으로 유의한 정적 조절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가정-일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맞벌이 여성의 결혼 만족도가 낮았지만 이러한 패턴의 기울기는 *스트레스 소통* 수준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집단에 비해 1표준편차 높은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작았다. 이는 가정-일 갈등 상황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결혼 만족도가 스트레스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맞벌이 남성은 가정-일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낮았지만 이러한 패턴의 기울기는 *스트레스 소통*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이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의 조절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수정결정계수(adjusted R^2)가 .32로 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가 중국 맞벌이 근로자의 결혼 만족도 변화에 대해 32%를 설명할 수 있었다 (F=14.57 p<.001). 각 변수들의 회귀계수의 유의 수준을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B=-1.80, β=-.39, p<.001), 가정-일 갈등(B=-.21, β=-.32, p<.01)이 개인의 결혼 만족도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맞벌이 남성의 결혼 만족도가 맞벌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가정-일 갈등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맞벌이 근로자일수록 낮은 수준의 결혼 만족도를 보였다. 독립변수, 조절변수 및 성별의 3요인 상호작용항 가정-일 갈등×공동적 이원 대처×성별의 회귀계수가 B=.02(β=.32),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가정-

일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결혼 만족도가 낮았지만 이러한 패턴의 기울기는 부부의 *공동적 대처* 수준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집단에 비해 1표준편차 높은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작았다. 이는 가정-일 갈등 상황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결혼 만족도가 부부간의 공동적 이원 대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보호 효과는 맞벌이 여성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4>위계적 회귀분석 결과표 *N*=432

변인	가본 회귀 모델			부정적 이원 대처 조절 모델			스트레스 소통 조절 모델						공동적 이원 대처 조절 모델					
	1단계			2단계 2요인 상호작용			2단계 2요인 상호작용			3단계 3요인 상호작용			2단계 2요인 상호작용			3단계 3요인 상호작용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항	1.72*	.83		2.03**	.76		2.02**	.75		3.14**	.96		1.88*	.75		3.36**	.97	
성별	−.92***	.23	−.20	−.87***	.21	−.19	−.86***	.21	−.19	−1.60***	.44	−.35	−.87***	.21	−.19	−1.80***	.47	−.39
연령	.14	.20	.04	.27	.19	.08	.23	.18	.07	.22	.19	.06	.23	.18	.07	.21	.18	.06
최종학력	−.12	.11	−.06	−.17†	.10	−.08	−.16	.10	−.08	−.16	.10	−.08	−.13	.10	−.07	−.14	.10	−.07
혼인기간	−.13	.16	−.06	−.23	.14	−.10	−.21	.14	−.09	−.18	.14	−.08	−.22	.14	−.10	−.18	.14	−.07
취업상태	−.04	.07	−.03	−.03	.06	−.02	−.05	.06	−.04	−.05	.06	−.03	−.04	.06	−.03	−.05	.06	−.03
근무시간	−.11	.09	−.06	−.05	.08	−.03	−.06	.08	−.03	−.05	.08	−.02	−.04	.08	−.02	−.03	.09	−.01
월 소득	.16	.14	.06	.05	.12	.02	.05	.12	.02	.05	.12	.02	.04	.12	.02	.04	.12	.02
자녀의 수	.14	.24	.03	.10	.21	.02	.14	.21	.03	.10	.21	.02	.13	.21	.03	.10	.21	.04
자녀 기관 돌봄 여부	−.02	.26	−.004	−.09	.23	−.02	−.07	.23	−.01	−.09	.23	−.02	−.08	.23	−.01	−.10	.23	−.02
일-가정 갈등	−.07	.04	−.10	−.05	.04	−.07	−.05	.04	−.08	−.05	.04	−.07	−.06	.04	−.08	−.05	.04	−.08
가정-일 갈등	−.15***	.04	−.24	−.06	.04	−.09	−.36**	.11	−.55	−.18*	.07	−.28	−.37**	.11	−.57	−.21**	.08	−.32
스트레스 소통				.61**	.19	.21	−.10	.31	−.03	.36	.23	.12	.63**	.18	.21	.64**	.19	.22
부정적 이원 대처				−.52***	.13	−.18	−.53***	.13	−.19	−.52***	.13	−.18	−.53***	.13	−.19	−.51***	.13	−.18
공동적 이원 대처				.53**	.19	.18	.45*	.19	.15	.47*	.19	.16	−.35	.34	−.12	.09	.27	.03
가정-일 갈등 × 조절변수				−.07	.11	−.03	.08**	.03	.51				.08**	.03	.52			
가정-일 갈등 × 조절변수 × 성별										.02†	.01	.26				.02*	.01	.32
F	7.86			14.12			14.88			14.44			15.01			14.57		
adj.R^2	.15***			.31***			.33***			.32***			.33***			.32***		

†*p* < .10, *** *p*<.001, ** *p*<.01, * *p*<.05

<그림 1>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소통의 조절효과

<그림 2> 성별에 따른 공동적 이원 대처의 조절효과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현대 중국 맞벌이 근로자의 일-가정 갈등 및 가정-일 갈등 경험과 개인과 배우자가 사용하는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자신의 결혼 만족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부 관계의 질을 보호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검증되고 있지만(Falconier et al., 2015; Hiefner, 2021; Rapelli et al., 2021; Rottmann et al., 2015; 유계숙, 주수산나, 2021)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 측정 시 특성이 비슷한 몇 가지의 하위 척도만 사용하거나 모든 하위 척도를 통합해서 한 변인으로 간주한 상태에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변수 조작 방법으로 인해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효과는 부분적으로만 검증되어 있다. 선행연구들은 개인과 배우자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 중 부정적 대처 방식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소통이 갖는 효과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맞벌이 근로자가 일-가정 및 가정-일 갈등 상황에서 배우자와 어떻게 함께 대처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개인의 *스트레스 소통, 공동적 이원 대처*, 그리고 배우자의 *부정적 이원 대처* 하위 척도를 각각 독립적인 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맞벌이 남성 181명과 맞벌이 여성 25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한 내용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정 갈등 및 가정-일 갈등이 결혼 만족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탐색한 결과 중국 맞벌이 근로자가 가정-일 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개인의 결혼 만족도가 낮았고, 개인의 일-가정 갈등은 결혼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즉, 중국 맞벌이 근로자는 직장 활동을 할 때 가사노동이나 가족 돌봄 등의 문제로 방해받거나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그러나 직장 업무가 많거나 직장 문제로 인해서 가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결혼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 맞벌이 근로자가 지각하는 일-가정 갈등 수준은 가정-일 갈등 수준보다 높았지만 그들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일 갈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비슷하다(刘浈 等, 2020; 郑颖娴 等, 2015). 일-가정 갈등은 일이 가정생활에 갈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스트레스원이 된 문제는 주로 직장에서 나타난 직업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일-가정 갈등이 나타났을 때 직장생활에 대한 개인의 불만이 가정생활에 대한 불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가정-일 갈등은 개인의 가정 역

할 수행이 직장 활동에 방해가 되어서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갈등 상황을 의미한다. 이때 스트레스원이 된 문제가 주로 가정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초래하는 다른 가정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양성평등 사상의 영향을 받은 많은 중국 맞벌이 여성들은 배우자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참여에 대해 더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林芯宇, 2012; 郑颖娴等, 2015). 따라서 여전히 집안일과 자녀 양육의 주요 책임자로서 전통적 성역할 수행을 강요받는 동시에 직장 업무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은 중국 맞벌이 여성의 양성평등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이는 남편에 대한 불만과 함께 결혼 만족도가 더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刘浈 等, 2020; 郑颖娴 等, 2015).

둘째, 중국 맞벌이 근로자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들이 개인의 가정-일 갈등과 결혼 만족도의 부적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 개인의 *스트레스 소통*과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가 양자의 부적 관계를 완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가정-일 갈등을 경험할 때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표현하고,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배우자로부터 실제적이거나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배우자가 제공해주는 도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인의 *스트레스 소통*은 가정-일 갈등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함께 부정적 정서를 안정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등의 공동적 이원 대처 또한 가정-일 갈등과 결혼 만족도 간 부적 관계를 완화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Fallahchai, & Fallahi, 2022; Fallahchai et al., 2019; Herzberg, 2013; Landis et al., 2013).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와 갈등에 대해 배우자와 소통하는 것은 개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할 수 있는 자기노출(self-disclosure) 행동이며, 이와 같은 개방적 소통 행동은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부부 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Bartz & Lydon, 2008; Willems et al, 2020; 隗晶林, & 王希华, 2012).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 방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도움을 제공해주는 일방적 대처 방식과 달리 부부가 함께 스트레스 대처 과정에 참여하는 대처 방식을 의미한다(Bodenmann, 1995).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것을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할수록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더 적게 받을 수 있으며, 부부 관계가 더 만족스러울 수 있다(Topcu-Uzer et al., 2020). 특히 일과 가정 갈등은 개인이 가족과 직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갈등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스트레스 문제를 함께 노력해서 해결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부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성(sense of unity)을 높이며, 부부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Topcu-Uzer

et al., 2020).

셋째, 스트레스 소통과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방식이 가정-일 갈등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맞벌이 근로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남녀 모두 *스트레스 소통* 수준과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정-일 갈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결혼 만족도는 더 낮게 나타났다. 맞벌이 남성의 결혼 만족도가 맞벌이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스트레스 소통*과 개인이 지각하는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의 보호 효과는 맞벌이 여성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소통'* 수준과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 수준을 1 표준편차 낮게 지각한 맞벌이 여성은 1 표준편차 높게 지각한 여성들보다 가정-일 갈등을 높게 경험할수록 결혼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반면에 가정-일 갈등 수준이 높더라도 *스트레스 소통*과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 수준을 1 표준편차 높게 지각한 맞벌이 여성은 낮게 지각한 여성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적 차원에서 성별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예컨대, 여성은 관계를 형성할 때 남성보다 정서적 친밀감과 타인과의 상호지지 및 상호의존성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ook et al., 2003; Pearce et al., 2021; Ridley, 1993). 또한, 여성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적인 연결을 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반면에 남성은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과 '협상'하는 의도로 소통하는 경우가 더 많다(Tannen, 1990: Ridley, 1993에서 재인용). 이처럼 친밀감과 연결을 중시하는 여성의 관계적 특성에 비추어볼 때 스트레스 소통과 공동적 이원 대처는 가정-일 갈등 상황에서 맞벌이 여성을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더 긴밀하게 연결해줄 수 있는 방식이며 가정-일 갈등 상황에 있는 맞벌이 여성에게 특히 효과적일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트레스 소통과 공동적 이원 대처가 가정-일 갈등 상황에서 여성의 결혼 만족도를 보호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일-가정 갈등 및 가정-일 갈등이 각각 결혼 만족도와 다른 관계를 가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가정 갈등 및 가정-일 갈등은 모두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맥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지만 어떤 영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따라 갈등의 경험이 다를 수 있으며 결혼 만족도와도 다른 양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맞벌이 근로자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심화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일 갈등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정 갈등은 맞벌이 근로자의 결혼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중국 맞벌이 근로자에게 직장 업무로 인해 가정 역할 수행이 어려운 상황보다 가정 역할 수행으로 인해 직장 업무가 방해되는 상황에서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Bodenmann의 체계적 교환 모델(STM)과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질병과 같은 특수한 사건들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상 스트레스 상황이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살펴본 과거의 연구들은 주로 배우자의 질병과 같은 크고 비규범적인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는 개인이나 부부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로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Bodenmann의 이론을 사용하였다(Cai et al., 2021; Hiefner, 2021; Rottmann et al., 2015). 반면, 일과 가정 간 시간적 갈등이나 역할 병행 갈등과 같은 일상적인 갈등 상황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갈등을 부부 차원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해 왔다 (임인혜 & 유성경, 2020; Kossek & Lee, 2017; Michel, 2011; Rantanen, 2011; Rotondo et al., 2003). 이 연구들은 부부가 어떻게 공동적으로 대처하는지보다 주로 개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나 개인이 다른 사회적 관계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임인혜 & 유성경, 2020; Kossek & Lee, 2017; Minnotte & Minnotte, 2018; Rantanen, et. al., 2011; 刘浈 等, 2020).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질병이나 상실과 같은 비규범적이고 중대한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 가정-일 갈등이라는 일상적이고 소소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함께 대처할 때 결혼 만족도를 보호할 수 있음을 밝혀 기존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3가지 대표적인 하위 요인인 스트레스 소통, 부정적 이원 대처, 그리고 공동적 이원 대처가 개인의 결혼 만족도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일과 가정 갈등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의 대처 방식이 조절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과거의 연구들은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할 때 연구 문제에 따라 특정한 몇 가지 하위 요인을 선택하거나 특성이 비슷한 몇 가지 하위 요인(예: 지지적 이원 대처, 위임적 이원 대처 및 공동적 이원 대처)을 묶어서 한 변수로 사용하거나, 모든 대처 방식의 측정 점수를 합하여 한 변수로 분석하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Falconier et al., 2013; Fallahchai et al., 2019; Fallahchai & Fallahi, 2022; Merz et al., 2014). 이러한 변수 처리 방법은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부분적으로만 검증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예컨대, 연구 참여자들이나 배우자의 긍정적 이원 스트레스 대처 방식(예: 지지적 이원 대처, 위임적 이원 대처 및

공동적 이원 대처)만 사용해서 연구를 실시한 경우, 개인과 배우자가 스트레스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나 스트레스에 대해 배우자와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결혼 만족도나 부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의 긍정적•부정적 하위 방식을 모두 검증하였으며 이로 인해 선행 연구들보다 갈등 상황에서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구체적인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들이 가정-일 갈등 상황에서 결혼 만족도와 각각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검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효과가 맞벌이 남성과 여성에 대해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은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다를 수 있다(Hook et al., 2003; Pearce et al., 2021; Ridley, 1993). 부부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서로를 인정해주면, 배우자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아 결혼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소통'* 및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 는 맞벌이 여성 집단에서만 가정-일 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국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이 가정-일 갈등을 경험할 때 남편이 아내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아내의 스트레스 해소나 결혼 만족도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남성이 가정-일 갈등을 경험할 때 배우자로서 적극적으로 남편과 소통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기보다 남편이 혼자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이 남편의 스트레스 해소에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일과 가정 갈등 상황에서 중국 맞벌이 근로자들의 결혼 만족도 감소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예비 교육 부부를 제안하는 바이다. 결혼 및 연애와 관련한 교육 과정을 대학교의 교양수업, 특강 등의 형식이나 정부에서 개설하는 '결혼 전 교육 프로그램'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여 가족 책임, 부부간의 소통 기법, 가정 계획 등에 대해 홍보 및 교육하는 것이 중국 맞벌이 근로자들의 부부 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예비 부부 교육을 통해서 부부들에게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가정 갈등 및 가정-일 갈등이 부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겪는 스트레스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배우자와 소통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들이 결혼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맞벌이 부부가 가정-일 갈등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가정-일 갈등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 위기를

맞은 부부들에게는 부부 소통 방식 개선 프로그램 및 긍정적 상호작용 방식 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부부가 가정-일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훈련하여 부부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대로, 맞벌이 남성과 맞벌이 여성이 일-가정 갈등 및 가정-일 갈등에 대해서 각자 다르게 지각하고 있으면 그 영향도 다르게 나타나고, 선호하는 대처 방식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맞벌이 근로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자신과 배우자의 차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도움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더 정확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논하고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 단위 자료가 아닌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자료를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Bodenmann(1995, 1997, 2005)의 체계적 교환 모델(Systemic Transcational Model)에 따르면, 부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는 스트레스 사건과 부부 서로의 대처에 대해 반복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지각하는 자신과 배우자의 구체적인 대처 행동뿐만 아니라 개인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다.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들의 하위 척도들은 대부분 개인의 대처 방식이나 개인이 지각하는 배우자의 지지 행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이론의 핵심은 이런 개인 차원의 대처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이러한 대처 방식을 통해서 *'우리'*라는 개념을 얼마만큼 지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스트레스 소통, 배우자가 제공해주는 지지적, 부정적, 위임적 대처 그리고 부부의 공동적 이원 대처 등의 대처 행동을 통해서 배우자가 자신의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배우자가 제공해주는 도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배우자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내 배우자가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나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부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강화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의지 수준을 높이고, 부부간의 친밀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측정하는 도구는 단순히 개인과 배우자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하는 대처 방식에 대해서만 측정하였고 개인이 이러한 대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인지하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를 진행할 때 부부들의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조사하는 동시에 부부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성(we-ness)"을 느끼는지도 함께 측정한다면 이원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돌봄 및 집안일에 대해 노부모의 도움을 받는지를 고려하지 못했다. 徐浙宁(2015)의 상해시(上海市) 영유아 가정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82.3%의 가정은 자녀 돌봄에 있어 노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노부모들이 제공하는 가사분담과 자녀 돌봄은 맞벌이 근로자의 가정 역할 수행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들이 지각하는 일-가정 및 가정-일 갈등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노부모들의 도움을 통제 변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코로나 발생 이후 실시한 조사의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맞벌이 근로자의 일상이 코로나 사건에 영향을 많이 받아 과거보다 더 많은 변화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후속 연구를 할 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호준(2015).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부부 의사결정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임인혜, 유성경(2020).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갈등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4), 551-578. https://doi.org/10.20406/kjcs.2020.11.26.4.551

우현주, 유계숙(2013). 스트레스에 대한 부부공동대처가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2), 51-71.

원수경, 설경옥(2020). 부부의 일상 스트레스와 공동대처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0*(6), 813-821. https://doi.org/10.4040/jkan.20162

원수경(2016). **일상 스트레스와 결혼만족 간 관계에서 공동대처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유계숙(2010).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9*(1), 41-69.

유계숙, 주수산나(2021). COVID-19 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기혼자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공동대처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6*(1), 21-39.

Allen, T. D., Herst, D. E., Bruck, C. S., & Sutton, M. (2000).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work-to-family conflict: a review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2), 278-308. https://doi.org/10.1037/1076-8998.5.2.278

Bakker, A. B., & Demerouti, E. (2013). The spillover-crossover model. *New Frontiers in Work and Family Research*(pp.54-70). Psychology Press.

Bartz, J. A., & Lydon, J. E. (2008). Relationship-specific attachment, risk regulation, and communal norm adherence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3), 655-663. https://doi.org/10.1016/j.jesp.2007.04.003

Bodenmann, G., Charvoz, L., Bradbury, T. N., Bertoni, A., Iafrate, R., Giuliani, C., Banse, R., & Behling, J. (2007). The role of stress in divorce: A three-nation retrospective stud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5), 707-728. https://doi.org/10.1177/0265407507081456

Bodenmann, G. (2005). "Dyadic coping and its significance for marital functioning," in *Couples Coping with Stress: Emerging Perspectives on Dyadic Coping*,(pp. 33-49).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1031-002

Bodenmann, G. (1997). Dyadic coping-a systematic-transactional view of stress and coping among couples: Theory and empirical findings. *European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47*, 137-141.

Bodenmann, G. (1995). A systemic-transactional conceptualization of stress and coping in couples. *Swiss Journal of Psychology/ Schweizerische Zeitschrift für Psychologie/ Revue Suisse de Psychologie*, *54*, 34-49.

Bodenmann, G., Kaiser, A., Hahlweg, K., & FEHM-WOLFSDORF, G. A. B. R. I. E. L. E. (1998). Communication patterns during marital conflict: A cross-cultural replication. *Personal Relationships*, *5*(3), 343-356. https://doi.org/10.1111/j.1475-6811.1998.tb00176.x

Bodenmann, G., Randall, A. K., and Falconier, M. K. (2016). "The systemic transactional model (STM)," In M. K. Falconier, A. K. Randall, & G. Bodenmann (Eds.), *Couples coping with stres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pp. 5-22).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Bodenmann, G. (2005). Dyadic Coping and Its Significance for Marital Functioning. In T. A. Revenson, K. Kayser, & G. Bodenmann (Eds.), *Decade of behavior. Couples coping with stress: Emerging perspectives on dyadic coping* (p. 33-49).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1031-002

Bodenmann, G., Ledermann, T., Blattner-Bolliger, D., & Galluzzo, C. (2006). The association between everyday stress, critical life events, and sexual dysfunctio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4*, 494-501. https://doi.org/10.1097/01.nmd.0000228504.15569.b6

Bodenmann, G., Meuwly, N., Germann, J., Nussbeck, F. W., Heinrichs, M., & Bradbury, T. N. (2015). Effects of stress on the social support provided by men and women in intimat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Science*, *26*(10), 1584-1594. https://doi.org/10.1177/0956797615594616

Bradley, J. M., & Hojjat, M. (2017). A model of resilience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7*(5), 588-601. https://doi.org/10.1080/00224545.2016.1254592

Burley, K. A. (1995). Family variables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dual-career men and wome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5*(4), 483-497. https://doi.org/10.1080/00224545.1995.9712217

Byron, K. (2005). A meta-analytic review of work-family conflict and its antece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2), 169-198. https://doi.org/10.1016/j.jvb.2004.08.009

Cai, T., Qian, J., & Yuan, C. (2021). Dyadic coping in couples with breast cancer in China. *Cancer Nursing, 44*(6), E458-E466. https://doi.org/10.1097/ncc.0000000000000884

Cannon, C. A., & Cavanaugh, J. C. (1998). Chronic illness in the context of marriage: A systems perspective of stress and coping i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Families, Systems, & Health, 16*(4), 401-418. https://doi.org/10.1037/h0089865

Cao, H., Zhou, N., Fang, X., & Fine, M. (2017). Marital well-being and depression in Chinese marriage: Going beyond satisfaction and ruling out critical confound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1*(6), 775-784. https://doi.org/10.1037/fam0000312

Carroll, S. J., Hill, E. J., Yorgason, J. B., Larson, J. H., & Sandberg, J. G. (2013). Couple communication as a mediator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5*(3), 530-545. https://doi.org/10.1037/fam0000312.supp

Chen, L., Liu, J., Yang, H., Ma, H., Wang, H., Huang, Y., ... & Zhang, N. (2018). Work-family conflict and job burn-out among Chinese doctors: the mediating role of coping styles. *General Psychiatry*, *31*(1), 1-7. https://doi.org/10.1136/gpsych-2018-000004

Chen, F. M., & Li, T. S. (2007). Marital enqing: An examination of its relationship to spousal contributions, sacrifices, and family stress in Chinese marriag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7*(4), 393-412. https://doi.org/10.3200/socp.147.4.393-412

Chi, P., Epstein, N. B., Fang, X., Lam, D. O. B., & Li, X. (2013). Similarity of relationship standards, couple communication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Chinese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5), 806-816. https://doi.org/10.1037/a0034113

Cinamon, R. G., & Rich, Y. (2002). Gender differences in the importance of work and family roles: Implications for work-family conflict. *Sex Roles, 47*(11), 531-541. https://doi.org/10.1023/A:1022021804846

Coyne, J. C., & Smith, D. A. (1991). Couples coping with a myocardial infarction: a contextual perspective on wives'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3), 404-412. https://doi.org/10.1037/0022-3514.61.3.404

Dehle, C., Larsen, D., & Landers, J. E. (2001). Social support in marriag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9*(4), 307-324. https://doi.org/10.1080/01926180126500

Dudley, M. G., & Kosinski Jr, F. A. (1990). Religiosity and marital satisfaction: A research note.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78-86. https://doi.org/10.2307/3511329

Duxbury, L. E., & Higgins, C. A. (1991). Gender differences in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1), 60-74. https://doi.org/10.1037/0021-9010.76.1.60

Falconier, M. K., Nussbeck, F., & Bodenmann, G. (2013). Immigration stres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Latino couples: The role of dyadic cop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2*(8), 813-843. https://doi.org/10.1521/jscp.2013.32.8.813

Falconier, M. K., Nussbeck, F., Bodenmann, G., Schneider, H., & Bradbury, T. (2015). Stress from daily hassles in couples: Its effects on intradyadic stress,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1*(2), 221-235. https://doi.org/10.1111/jmft.12073

Falconier, M. K., Jackson, J. B., Hilpert, P., & Bodenmann, G. (2015). Dyadic coping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42*, 28-46. https://doi.org/10.1016/j.cpr.2015.07.002

Falconier, M. K., Randall, A. K., & Bodenmann, G. (2016). Cultural considerations in understanding dyadic coping across cultures. In M. K. Falconier, A. K. Randall, & G. Bodenmann (Eds.), *Couples coping with stres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pp. 23-35).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Fard, M. K., Shahabi, R., & Zardkhaneh, S. A. (2013). Religiosity and marital satisfaction.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82*, 307-311. https://doi.org/10.1016/j.sbspro.2013.06.266

Fallahchai, R., Fallahi, M., & Randall, A. K. (2019). A dyadic approach to understanding associations between job stress, marital quality, and dyadic coping for dual-career couples in Iran. *Frontiers in Psychology, 10*, 1-10. https://doi.org/10.3389/fpsyg.2019.00487

Fallahchai, R., & Fallahi, M. (2022). Parental stress and dyadic adjustment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ASD: Moderating effects of dyadic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23,* 104-192. https://doi.org/10.1016/j.ridd.2022.104192

Fiske, V., Coyne, J. C., & Smith, D. A. (1991). Couples coping with myocardial infarction: An empirical reconsideration of the role of overprotectivenes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5*(1), 4-20. https://doi.org/10.1037/0893-3200.5.1.4

Fung, H. H., Ho, Y. W., Tam, K. P., Tsai, J., & Zhang, X. (2011). Values moderate age differences in relationship orient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7), 994-999. https://doi.org/10.1016/j.paid.2011.01.009

Gottlieb, B. H., & Bergen, A. E. (2010). Social support concepts and measure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9*(5), 511-520. https://doi.org/10.1016/j.jpsychores.2009.10.001

Greenhaus, J. H., & Beutell, N. J.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76-88. https://doi.org/10.5465/amr.1985.4277352

Grzywacz, J. G., & Marks, N. F. (2000). Reconceptualizing the work-family interface: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correlates of positive and negative spillover between work and famil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1), 111-159. https://doi.org/10.1037/1076-8998.5.1.111

Gmelch, S., Bodenmann, G., Meuwly, N., Ledermann, T., Steffen-Sozinova, O., & Striegl, K. (2008). Dyadisches coping inventar (DCI): ein fragebogen zur erfassung des partnerschaftlichen umgangs mit stress. *Zeitschrift f□r Familienforschung*, *20*(2), 185-203. https://doi.org/10.20377/jfr-264

Halford, W. K., Wilson, K., Watson, B., Verner, T., Larson, J., Busby, D., & Holman, T. (2010). Couple relationship education at home: Does skill training enhance relationship assessment and feedback?.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2), 188-196. https://doi.org/10.1037/a0018786

Halford, W. K., Lee, S., Hiew, D. N., & van de Vijver, F. J. (2018). Indirect couple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Chinese, Western, and Chinese-Western intercultural couples. *Couple and Family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7*(3-4), 183-200. http://dx.doi.org/10.1037/cfp0000109

Herzberg, P. Y. (2013). Coping in relationships: The interplay between individual and dyadic coping and their effects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Anxiety, Stress & Coping, 26*(2), 136-153. https://doi.org/10.1080/10615806.2012.655726

Hiefner, A. R. (2021). Dyadic coping and couple resilience after miscarriage. *Family Relations*, *70*(1), 59-76. https://doi.org/10.1111/fare.12475

Higgins, C. A., & Duxbury, L. E. (1992). Work-family conflict: A comparison of dual-career and traditional-career me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4), 389-411. https://doi.org/10.1002/job.4030130407

Hilpert, P., Bodenmann, G., Nussbeck, F. W., & Bradbury, T. N. (2013). Predic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based on a stratified sample: a matter of conflict, positivity, or support?. *Family Science, 4*(1), 110-120. https://doi.org/10.1080/19424620.2013.830633

Hou, Y., Jiang, F., & Wang, X. (2019). Marital commitment,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An analysis based o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54*(3), 369-376. https://doi.org/10.1002/ijop.12473

Jin, J., Xu, S., & Wang, Y. (2014). A comparison study of role overload,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between China and North America: The moder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Acta Psychologica Sinica, 46*(8), 1144-1160. https://doi.org/10.3724/sp.j.1041.2014.01144

Kanter, J. B., Lavner, J. A., Lannin, D. G., Hilgard, J., & Monk, J. K.

(2022). Does couple communication predict later relationship quality and dissolut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4*(2), 533-551. https://doi.org/10.1111/jomf.12804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s,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1), 3-34. https://doi.org/10.1037/0033-2909.118.1.3

Kinnunen, U., Vermulst, A., Gerris, J., & M□kikangas, A. (2003). Work-family conflict and its relations to well-being: The role of personality as a moderating fact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7), 1669-1683. https://doi.org/10.1016/s0191-8869(02)00389-6

Kim, D., Kwon, Y., & Xin, S. (2021). The effects of enjoyable couple activity and common dyadic coping on marital satisfaction through mediation of sexual intimacy: Focusing on urban Chinese women in the early years of marriag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9*(1), 45-58. https://doi.org/10.6115/fer.2021.004

Kim, H. S., Sherman, D. K., & Taylor, S. E. (2008). Culture and social support. *American Psychologist, 63*(6), 518-526. https://doi.org/10.1037/0003-066X

Koball, H. L., Moiduddin, E., Henderson, J., Goesling, B., & Besculides, M. (2010). What do we know about the link between marriage and health?. *Journal of Family Issues, 31*(8), 1019-1040. https://doi.org/10.1177/0192513x10365834

Kossek, E. E., & Lee, K. H. (2017). Work-family conflict and work-life conflict.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Business and Management*. 1-21. https://doi.org/10.1093/acrefore/9780190224851.013.52

Kwok, S. Y. C. L., Cheng, L., Chow, B. W. Y., & Ling, C. C. Y. (2015). The spillover effect of parenting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Chinese moth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3), 772-783. https://doi.org/10.1007/s10826-013-9888-x

Lavner, J. A., & Bradbury, T. N. (2010). Patterns of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newlywed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5), 1171-1187. https://doi.org/10.1007/s10826-013-9888-x

Landis, M., Peter-Wight, M., Martin, M., & Bodenmann, G. (2013). Dyadic coping and marital satisfaction of older spouses in long-term marriage.

GeroPsych: The Journal of Gerontopsychology and Geriatric Psychiatry, 26(1), 39-47. https://doi.org/10.1024/1662-9647/a000077

Ledermann, T., Bodenmann, G., Rudaz, M., & Bradbury, T. N. (2010). Stress, communication, and marital quality in couples. *Family Relations, 59*(2), 195-206. https://doi.org/10.1111/j.1741-3729.2010.00595.x

Li, X., Cao, H., Curran, M. A., Fang, X., & Zhou, N. (2020). Traditional gender ideology, work family conflict, and marital quality among Chinese dual-earner couple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Sex Roles, 83*(9-10), 622-635. https://doi.org/10.1007/s11199-020-01125-1

Liu, H., Ngo, H. Y., & Cheung, F. M. (2016). Work-family enri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Chinese couples: A crossover-spillover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23*(2), 209-231. https://doi.org/10.1037/a0039753

Lyons, R. F., Mickelson, K. D., Sullivan, M. J., & Coyne, J. C. (1998). Coping as a communal proces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5), 579-605. https://doi.org/10.1177/026540759815500

Lu, L., Kao, S. F., Chang, T. T., Wu, H. P., & Cooper, C. L. (2011). Work/family demands, work flexibility, work/family conflict, and their consequences at work: A national probability sample in Taiwan. *Internation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Research, Practice, Consultation, 1*(S), 68-81. https://doi.org/10.1037/2157-3883.1.s.68

Lyu, X., & Fan, Y. (2022).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of work family conflict, work engagement and job crafting: A gender perspective. *Current Psychology: A Journal for Diverse Perspectives on Diverse Psychological Issues, 41*(4), 1767-1777. https://doi.org/10.1007/s12144-020-00705-4

Matthews, L. S., Conger, R. D., & Wickrama, K. A. (1996). Work-family conflict and marital quality: Mediating process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9*(1), 62-79. https://doi.org/10.2307/2787119

Meier, C., Bodenmann, G., M□rgeli, H., & Jenewein, J. (2011). Dyadic coping, quality of life,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patients and their partners. *International Journal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6*, 583-596.

https://doi.org/10.2147/copd.s24508

Merz, C. A., Meuwly, N., Randall, A. K., & Bodenmann, G. (2014). Engaging in dyadic coping: Buffering the impact of everyday stress on prospective relationship satisfaction. *Family Science, 5*(1), 30-37. https://doi.org/10.1080/19424620.2014.927385

McDaniel, B. T., & Coyne, S. M. (2016). "Technoference": The interference of technology in couple relationships and implications for women's personal and relational well-being. *Psychology of Popular Media Culture, 5*(1), 85-98. https://doi.org/10.1037/ppm0000065

Michel, J. S., Kotrba, L. M., Mitchelson, J. K., Clark, M. A., & Baltes, B. B. (2011). Antecedents of work-family conflict: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2*(5), 689-725. https://doi.org/10.1037/e518632013-410

Miller, R. B., Mason, T. M., Canlas, J. M., Wang, D., Nelson, D. A., & Hart, C. H. (2013).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n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4), 677-682. https://doi.org/10.1037/a0033333

Minnotte, K. L., & Minnotte, M. C. (2018). Work-family conflict among dual-earners: are partner, family, and friends resources or liabiliti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9*(2), 258-276. https://doi.org/10.1007/s10834-017-9561-4

Minnotte, K. L., Minnotte, M. C., & Bonstrom, J. (2015). Work-family conflicts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US workers: Does stress amplification matter?.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6*(1), 21-33. https://doi.org/10.1007/s10834-014-9420-5

Mojaverian, T., & Kim, H. S. (2013). Interpreting a helping hand: Cultural variation in the effectiveness of solicited and unsolicited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1), 88-99. https://doi.org/10.1177/0146167212465319

Mortenson, S. T., Burleson, B. R., Feng, B., & Liu, M. (2009).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seeking social support as a means of coping: A comparison of European Americans and Chinese and an evaluation of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strual.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2*(3), 208-239. https://doi.org/10.1080/17513050902985331

Netemeyer, R. G., Boles, J. S., & McMurrian, R.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work-family conflict and family-work conflict scal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4), 400-410. https://doi.org/10.1037/0021-9010.81.4.400

Patrick, S., Sells, J. N., Giordano, F. G., & Tollerud, T. R. (2007). Intimacy, differentiation, and personality variables as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The Family Journal*, *15*(4), 359-367. https://doi.org/10.1177/1066480707303754

Paulin, M., Lachance-Grzela, M., & McGee, S. (2017). Bringing work home or bringing family to work: Personal and relational consequences for working parent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8*(4), 463-476. https://doi.org/10.1007/s10834-017-9524-9

Randall, A. K., & Bodenmann, G. (2009). The role of stress on close relationships and marital satisfac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29*(2), 105-115. https://doi.org/10.1016/j.cpr.2008.10.004

Rantanen, M., Mauno, S., Kinnunen, U., & Rantanen, J. (2011). Do individual coping strategies help or harm in the work-family conflict situation? Examining coping as a moderator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8*(1), 24-48. https://doi.org/10.1037/a0022007

Rapelli, G., Donato, S., Pagani, A. F., Parise, M., Iafrate, R., Pietrabissa, G., ... & Bertoni, A. (2021). The Association Between Cardiac Illness-Related Distress and Partner Support: The Moderating Role of Dyadic Coping. *Frontiers in Psychology, 12*, 1-13. https://doi.org/10.3389/fpsyg.2021.624095

Ridley, J. (1993). Gender and couples: Do men and women seek different kinds of intimacy? *Sexual and Marital Therapy, 8*(3), 243-253. https://doi.org/10.1080/02674659308404971

Rottmann, N., Hansen, D. G., Larsen, P. V., Nicolaisen, A., Flyger, H., Johansen, C., & Hagedoorn, M. (2015). Dyadic coping within couples dealing with breast cancer: A longitudinal, population-based study. *Health Psychology*, *34*(5), 486-495. https://doi.org/10.1037/hea0000218

Shi, G., Shi, T., Liu, Y., & Cai, Y. (2021). Relationships between dyadic coping, intimate relationship and post-traumatic growth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77*(12), 4733-4742. https://doi.org/10.1111/jan.14946

Somech, A., & Drach-Zahavy, A. (2007). Strategies for coping with work-family conflict: The distinctive relationships of gender role ideolog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2*(1), 1-19. https://doi.org/10.1037/1076-8998.12.1.1

Taylor, S. E., Sherman, D. K., Kim, H. S., Jarcho, J., Takagi, K., & Dunagan, M. S. (2004). Culture and social support: Who seeks it and w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3), 354-362. https://doi.org/10.1037/0022-3514.87.3.354

Topcu-Uzer, C., Randall, A. K., Vedes, A. M., Reid, D., & Bodenmann, G. (2021). We-ness Questionnair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uple & Relationship Therapy, 20*(3), 256-278. https://doi.org/10.1080/15332691.2020.1805082

Van Steenbergen, E. F., Kluwer, E. S., & Karney, B. R. (2011). Workload and the trajectory of marital satisfaction in newlyweds: Job satisfaction, gender, and parental status as moderato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3), 345-355. https://doi.org/10.1037/a0023653

Van Lange, P. A. M., & Balliet, D. (2015). Interdependence theory. In M. Mikulincer, P. R. Shaver, J. A. Simpson, & J. F. Dovidio (Eds.), *APA Handbook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Interpersonal relations* (pp. 65-9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4344-003

Wang, H. M., Ma, A. L., & Guo, T. T. (2020). Gender concept, work pressure, and work-family conflict. *American Journal of Men's Health, 14*(5), 1-12. https://doi.org/10.1177/1557988320957522

Wang, J. Y., Zhu, M. P., & Xu, B. B. (2018). Spousal support: Development process and influencing factors. *Advances in Social Sciences, 7*, 1258-1267. https://doi.org/10.12677/ass.2018.78185

Willems, Y. E., Finkenauer, C., & Kerkhof, P. (2020). The role of disclosure in relationship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31*, 33-37. https://doi.org/10.1016/j.copsyc.2019.07.032

Won, S. K., & Seol, K. O. (2020).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Couple's Daily Stress and Dyadic Coping on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0*(6), 813-821.

https://doi.org/10.4040/jkan.20162

Xie, J., Zhou, Z. E., & Gong, Y. (2018). Relationship between proactive pers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A spillover-crossover perspectiv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8*, 75-80. https://doi.org/10.1016/j.paid.2018.02.011

Xie, J., Ma, H., Tang, H., & Jiang, H. (2017). Family supportive supervisor behavior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Chinese dual-earner couples: Testing a positive spillover-crossover model. *Acta Psychologica Sinica, 49*(3), 359-369. https://doi.org/10.3724/sp.j.1041.2017.00359

Xin, S., Zheng, Y., & Xin, Z. (2020). Changes in work-family conflict of Chinese employees: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2005-2016. *Frontiers in Psychology, 11*(124), 1-12. https://doi.org/10.3389/fpsyg.2020.00124

Xu, F., & Hiew, D. N. (2016). Dyadic coping in Chinese couples. In M. K. Falconier, A. K. Randall, & G. Bodenmann (Eds.), *Couples Coping With Stres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pp. 218-235).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Xu, F., Hilpert, P., Nussbeck, F. W., & Bodenmann, G. (2018). Testing stress and dyadic coping processes in Chinese couple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25*(1), 84-95. https://doi.org/10.1037/str0000051

Xu, F., Hilpert, P., Randall, A. K., Li, Q., & Bodenmann, G. (2016). Validation of the Dyadic Coping Inventory with Chinese couples: Factorial structure, measurement invariance, and construct validity. *Psychological Assessment, 28*(8), e127-e140. https://doi.org/10.1037/pas0000329

Yucel, D. (2017). Work-family balance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mental and physical health. *Society and Mental Health, 7*(3), 175-195. https://doi.org/10.1177/2156869317713069

Yokotani, K., & Kurosawa, T. (2015). A pilot examination of dyadic coping inventory among Japanese married couples. *Psychologia*, *58*(3), 155-164. https://doi.org/10.2117/psysoc.2015.155

Yu, J., Song, H., Shi, H., & Wang, K. (2020). Association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overall well-being among Chinese nurse leader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28*(7), 1498-1503.

https://doi.org/10.1111/jonm.13084

Zhang, T., Fan, F., Tan, L., Ou, L., & Yuan, L. (2020). The Study on Work Stress of Prison Guards from Prisons in City A, China. *2020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disciplinary Social Sciences & Humanities,* 8–15. https://doi.org/10.25236/soshu.2020.003

Zhang, S., & Kline, S. (2020). Couple communication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Cross-cultural family research and practice* (pp.211–247).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b978-0-12-815493-9.00007-7

安慧颖，王月芹，陈长英，王盼盼，刘南，& 张君瑞(2020). 中青年淋巴瘤患者二元应对水平及影响因素分析. *护理学杂志,* *35*(3), 70–73. https://doi.org/10.3870/j.issn.1001-4152.2020.03.070

第三期中国妇女社会地位调查课题组（2011）. 第三期中国妇女社会地位调查主要数据报告. *妇女研究论丛, 6*, 5–15.

蒋永萍(2019). 育儿政策对妇女发展和家庭性别关系的影响——以 0–3 岁托育服务发展为例. *中华女子学院学报,* *6*, 67–73. https://doi.org/10.13277/j.cnki.jcwu.2019.06.009

金家飞，徐姗，& 王艳霞(2014). 角色压力，工作家庭冲突和心理抑郁的中美比较. *心理学报*, *46*(8), 1144–1160.

孔海燕(2016). 父母婚姻质量与子女心理健康关系的研究. *教育理论与实践,* *36*(4), 48–52.

刘爱玉，佟新，& 付伟(2015). 双薪家庭的家务性别分工：经济依赖，性别观念或情感表达. *社会,* *35*(2), 109–136. https://doi.org/10.15992/j.cnki.31-1123/c.2015.02.006

刘浈，方晓义，兰菁，琚晓燕，& 郑颖娴(2020). 工作家庭冲突对婚姻质量的即时和长时效应：配偶支持的中介作用. *中国临床心理学杂志,* *28*(5), 954–959. https://doi.org/10.16128/j.cnki.1005-3611.2020.05.020

连东琴，史慧颖，& 范玲霞(2014). 婚姻满意度的研究述评. *Advances in Psychology, 4*(2), 338–343. https://doi.org/10.12677/AP.2014.42048

李亚妮(2008). “工作和家庭的平衡：中国状况分析及政策研讨会” 综述. *妇女研究论丛, 4*, 66–75.

卢淑华(1992). 中国城市婚姻与家庭生活质量分析. *社会学研究,* *7*(4), 84–91. https://doi.org/10.19934/j.cnki.shxyj.1992.04.013

路蓉(2014). *离婚率持续增高的原因调查及法理分析*. 中国法院网陕西频道.

穆滢潭(2020). 家庭工作冲突与个人生活福祉. *财经研究,* *46*(10), 123–138.

https://doi.org/10.16538/j.cnki.jfe.20200518.301
脉脉数据研究院，开课吧(2011). *2021年中国职场压力报告*. 开课吧.
石占菊(2018). 工作家庭冲突与婚姻满意度：夫妻沟通模式的中介作用和人际情绪调节的调节作用（Master's thesis，西北师范大学).
苏涛，陈春花，李芷慧，潘伟，& 冯镜铭(2019). 跨文化视角下员工工作对家庭冲突与工作态度关系的 Meta 研究. *管理学报*，*16*(11)，1650−1660.
汤芙蓉(2018). 四川省藏区警察工作-家庭冲突与工作满意度调查. *中国职业医学*，*45*(1)，126−128.
王存同，& 余姣(2013). 中国婚姻满意度水平及影响因素的实证分析. *妇女研究论丛*，*1*，25−32.
王昱然(2020). 新生代员工工作时间与工作绩效的关系（Master's thesis，河北大学).
王永(2017). 婚产假情况调查. *收藏*，*4*，14−16.
隗晶林，王希华(2012). 成人亲密关系质量的影响因素研究综述. *漳州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2)，119−123. https://doi.org/10.16007/j.cnki.issn2095−7114.2012.02.018
吴捷，杨春，赵加伟，唐勤，乔子涵，& 方晓义(2018). 中国老年夫妻的生活压力与婚姻质量:沟通质量的调节作用.*第二十一届全国心理学学术会议摘要集*. 786−787.
夏贤吉(2017). 职业女性工作家庭冲突对婚姻关系满意度的影响. *科学中国人*，*23*，185−186.
徐安琪，叶文振(1998). 婚姻质量：度量指标及其影响因素. *中国社会科学*，*1*，145−159.
徐浙宁(2015). 早期儿童家庭养育的社会需求分析. *当代青年研究*，*5*，25−30.
许琪，邱泽奇，& 李建新(2015). 真的有“七年之痒”吗?——中国夫妻的离婚模式及其变迁趋势研究. *社会学研究*，*5*，216−246. https://doi.org/10.19934/j.cnki.shxyj.2015.05.011
杨阿丽，& 方晓义(2009). 婚姻冲突，应对策略及其与婚姻满意度的关系. *心理學探新*，*29*(1)，87−92.
余璇，冉秋燕，罗楠，& 文俊(2020). 内卷化文献综述与研究展望. *中国心理学前沿*，*2*(12)，1227−1239 . https://doi.org/10.35534/pc.0212092
袁正，& 李玲(2017). 婚姻与幸福感：基于 WVS 的中国微观数据. *中国经济问题*，*1*，24−35. https://doi.org/10.19365/j.issn1000−4181.2017.01.03
易松国(1997). 影响城市婚姻质量的因素分析——根据武汉千户问卷调查. *人口研究*，*21*(5)，42−45.
张会平(2019). 我国城市女性离婚意向的实证分析——基于婚姻投资模型的视角. *收藏*，*6*(2)，72−79.

郑颖娴，肖佳莹，李晓敏，兰菁，琚晓燕，& 方晓义(2015). 新婚夫妻工作家庭冲突对婚姻质量的预测作用. *中国临床心理学杂志, 6*, 1070-1074. https://doi.org/10.16128/j.cnki.1005-3611.2015.06.027

郑杨，& 张艳君(2016). 中瑞两国家庭政策对家庭育儿策略的影响. *知与行, 3*, 121-128. https://doi.org/10.19309/j.cnki.zyx.2016.03.026

曾练平，& 燕良轼(2013). 中文版工作家庭平衡量表的信效度研究. *中国临床心理学杂志, 21*(6), 988-991. https://doi.org/10.16128/j.cnki.1005-3611.2013.06.012

周春燕，叶天，黄海，李林，宋静静，& 刘陈陵(2018). 家庭-工作冲突对工作母亲婚姻满意度的影响. *中国临床心理学杂志, 5*, 1002-1005. https://doi.org/10.16128/j.cnki.1005-3611.2018.05.035

周柳伶，李信，刘彤，& 陈毅文(2017). 婚姻满意度对儿童心理适应性的影响：成人依恋，父母情绪表达，亲子依恋的多重中介作用. *心理与行为研究, 15*(5), 714-720.

中国大司法数据研究院(2018). *中国司法大数据专题报告之离婚纠纷.* 中国大司法数据研究院.

Deloitte(2021). *2021中国女性职场现状调查报告.*

부록. 한국어 설문지

일·가정 갈등 및 부부의 결혼 만족도 조사

-응답자 선정질문-

1. 귀하는 현재 혼인 상태입니까?
(이혼, 별거, 사별 등은 혼인 상태가 아닙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설문중단(조사대상 아님)

2. 귀하는 현재 한 명 혹은 한 명 이상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십니까?
(귀하의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 설문중단(조사대상 아님)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여

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① 22~30세 ② 31~40세 ③ 41~50세 ④ 51~60세 ⑤60세 이상

3. 귀하의 교육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최종 졸업학교를 기준으로 응답; 대학교 재학, 휴학, 중퇴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응답)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③ 대학교(2-3년제)졸업
④ 대학교(4년제 이상)졸업
⑤ 대학원 졸업 이상

4. 귀하의 결혼생활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3년 이하 ② 4-7년 이하 ③ 8-11년 이하 ④ 12년 이상

5. 귀하의 현재 고용 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정규직 풀타임
② 비정규직 풀타임
③ 파트타임
④ 자유직업(고용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개인의 능력이나 기술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돈을 벌어 생활하는 직업. 예술가, 저술가, 종교가, 개업의, 변호사 등)
⑤ 고용상태가 아님 (조사대상 아님)

6. 귀하의 최근 6개월간의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40시간 미만 ② 40시간 이상

7. 귀하의 월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2000위안(약 35만원) 미만
② 2001-4999위안(약 35-85만원)
③ 5000-7999위안(약 85-137만원)
④ 8000위안 이상(약 137만원)

8. 귀하의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9. 귀하의 각 자녀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_____세

10. 귀하의 자녀는 기관에 다니고 있습니까?
① 예 --> 11번 ② 아니요 --> 12번

11.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기관은 공립 기관입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2, 귀하의 일-가정 갈등 수준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집으로 돌아가도 일에 관한 문제와 고민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바쁜 업무 때문에 가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피곤해서 나는 가정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집에서 쉬게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5. 개인 문제와 가족 문제가 나를 근무시간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다.	①	②	③	④	⑤
6. 가정 스트레스가 내가 일을 할 때 쉽게 화를 내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7. 가정일 때문에 잠이 부족해서 일을 잘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정 역할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3. 다음은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일-가정 및 가정-일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배우자의 실질적인 지지, 조언, 도움에 고마워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배우자에게 도와 달라고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에게 문제가 있거나 일이 잘 안될 때 나는 행동으로 배우자에게 알린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배우자의 지지를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배우자에게 직접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배우자는 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배우자는 항상 자신이 내 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배우자는 내가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지 못할 때 나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배우자는 스트레스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배우자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을 잘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배우자는 나의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배우자는 나를 마지못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배우자는 나를 돕기 위해 나의 일상적인 일을 대신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배우자는 내가 문제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상황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배우자는 내가 너무 바쁠 때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의 배우자는 모르는 척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는 문제에 함께 대처하며 확실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	①	②	③	④	⑤

있도록 서로 돕는다.					
19. 우리는 함께 음악을 듣거나 목욕을 하거나, 마사지 같은 것으로 서로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는 서로 애정 어린 방식으로 사랑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았을 때, 나의 결혼 생활은 ____점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1점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0점 매우 만족한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중국어 설문지

工作家庭压力与婚姻满意度的相关调查

研究对象筛选

1. 您目前的婚姻状况为
1） 已婚且与伴侣一起生活
2） 未婚、 离异、已婚但与伴侣分居等--结束问卷

2. 您目前是否正在抚养一名或一名以上的年龄为6岁及以下的孩子
1） 是
2） 否--结束问卷

1. 您的性别为
1） 男
2） 女

2. 您的年龄为
1） 22~30岁
2）31~40岁
3）41~50岁
4）51~60岁
5）60岁以上

3. 您的学历为（请按最终毕业学历作答，大学在学，休学，退学的情况请按“高中毕业”回答）
1）初中毕业
2）高中毕业
3）大专毕业（2-3年制大学）
4）大学毕业（4年制大学）

5）研究生毕业（硕士及以上学历）

4. 您目前所处婚姻关系的婚龄为
1）不到3年
2）3年以上7年以下
3）7年以上11年以下
4）11年以上

5. 您目前的就业情况为
1） 私立性质就业单位的正式职员（如： 一般公司职员，店员 等）
2） 公立性质就业单位的正式职员（如：公务员，国企职员 等）
3） 各性质就业单位的非正在职员（即 未与就业单位签订劳动或雇佣合同）
4） 各性质就业单位的兼职员（工作时间与时长无一般标准）
5） 自由职业者（如： 个体经营者，作家，自由编辑 等）
6） 目前并未处于就业状态

6. 您最近6个月之间的每周总计工作时间大约为
1） 不到40小时
2） 40小时以上

7. 您的月收入大约为
1） 2000元以下
2） 2000~4999元
3） 5000~7999元
4） 8000元以上

8. 您目前养育有几名子女
1） 1名
2） 2名
3） 3名
4） 4名
5） 5名及以上

9. 您所养育的孩子的年龄分别为_____

10. 您所养育的6岁以下的孩子目前是否再接受育儿机构（如： 幼儿园，托儿所 等）的照顾

1） 是——继续作答11题

2） 否——跳转到第12题

11. 您的孩子目前接受照顾的机构是否为公立机构（相较于私立机构收费较低）

1） 是

2） 否

12.本量表用于测量您最近感知到的工作-家庭和家庭-工作压力的水平。请根据您最近一个月来的感受回答下列问题，勾选符合自己实际情况的选项，回答并无正误之分。

	非常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非常同意
1.回到家里后，工作中的烦恼或难题仍然缠绕着我	①	②	③	④	⑤
2.繁忙的工作使我没有时间参与家庭活动	①	②	③	④	⑤
3. 工作如此劳累， 一直我没有精力处理家庭事务	①	②	③	④	⑤
4. 工作压力是我在家里变得急躁易怒	①	②	③	④	⑤
5. 个人烦恼或家庭问题使我工作时心不在焉	①	②	③	④	⑤
6. 家庭压力使我在工作中变得急躁易怒	①	②	③	④	⑤
7. 家庭杂事扰的我无法保证工作必须的睡眠	①	②	③	④	⑤
8. 对家庭尽责是我不能专心致志的工作	①	②	③	④	⑤

13.本量表用来测评您和您的伴侣是如何应对压力。请在答题时根据您的个人情况做出最符合的选择。请尽量诚实答题，答案无对错之分。

	非常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非常同意
1.我让ta知道，我很感谢ta实际的支持，建议和帮助。	①	②	③	④	⑤
2.当我比较忙的时候,我会请ta帮忙。	①	②	③	④	⑤
3.当我做的还不够好或者当我遇到问题时，我会通过我的行为让ta知道。	①	②	③	④	⑤
4.我坦诚地告诉ta我的真实感受,并会感谢ta的支持。	①	②	③	④	⑤
5.Ta能够感受并理解我的压力。	①	②	③	④	⑤
6.Ta会告诉我ta在我身边。	①	②	③	④	⑤

7.Ta责备我没有很好的应对压力。	①	②	③	④	⑤
8.Ta帮助我从不同角度看待压力情境。	①	②	③	④	⑤
9.Ta注意倾听我诉说，让我有机会沟通困扰我的原因。	①	②	③	④	⑤
10.Ta没有认真对待我的压力。	①	②	③	④	⑤
11.Ta提供支持，但是不情愿或不积极	①	②	③	④	⑤
12.为了帮助我应对困境，ta会分担通常需要我做的事。	①	②	③	④	⑤
13.Ta可以帮助我分析情况，以使我更好的面对问题	①	②	③	④	⑤
14.当我太忙时，ta可以帮助我。	①	②	③	④	⑤
15.当我有压力时，ta倾向于回避。	①	②	③	④	⑤
16.我们试着共同面对问题并寻找明确的解决方案	①	②	③	④	⑤
17.我们一起认真地探讨所面临的问题以及需要采取的应对措施	①	②	③	④	⑤
18.我们互相帮助，使双方从不同的角度正确地分析问题	①	②	③	④	⑤
19.我们一起从事一些活动来放松身心，比如一起散步，一起听音乐	①	②	③	④	⑤
20.我们彼此深爱对方，可以用爱的方式来应对压力。	①	②	③	④	⑤

14. 总的来说，在这段婚姻关系中我的幸福指数是_____分
(1分代表十分不满意，10分代表非常满意)

感谢您的作答

中文摘要

近年来随着中国经济的发展和女性就业率的提升，传统的“男主外，女主内”的家庭形态发生了变化，夫妻双方都参与经济活动的双职工家庭在不断增加。在“996”职场加班文化盛行的中国就业环境下，双职工家庭在平衡工作和家庭两者的过程中会感受到比传统家庭更多的压力和矛盾。而工作家庭压力又是导致夫妻婚姻满意度低下的重要因素之一。在以往的研究中，学者们大多关注了个人或者企业组织方面的压力应对因素对于工作家庭压力造成的影响有什么作用，而少有研究把注意力放在夫妻这个整体的应对方式上。因此，本研究将重点探讨夫妻的二元压力应对方式是否能够调节双职工夫妻的工作家庭压力（work-family conflict）与家庭工作压力(family-work conflict)对婚姻满意产生的负面影响。

本研究的研究对象为目前正处于婚姻关系中，且正在抚养0-6岁婴幼儿的双职工家庭中的妻子251名， 丈夫181名（每个家庭中至少有一名丈夫或妻子接受问卷调查，但并非所有的男性和女性都互为夫妻关系）。本研究采用了阶层式回归分析的方式，在控制了研究参与者的年龄，最终学历水平，婚龄，职业类型，每周平均工作时长，月收入，子女的数量，子女目前是否有托管机构后，对自变量“工作家庭压力”和“家庭工作压力”与因变量“个人的婚姻满意度”之间的关系进行检验后，逐步加入调节变量“夫妻的二元压力应对方式（压力沟通，负面二元压力应对方式，夫妻的共同压力应对方式）”与自变量的交互项，从而检验调节效应是否存在。

本研究的研究结果主要如下：1）双职工妻子或丈夫感知到的工作家庭压力对其婚姻满意度没有显著的影响，而家庭工作压力则对其婚姻满意度产生显著的负向影响。2）夫妻的二元压力应对方式中，个人的压力沟通，夫妻的共同压力应对方式对工作家庭压力和婚姻满意度的关系有显著的调节作用。3）个人的压力沟通与夫妻共同的压力应对方式的调节作用根据性别的差异有不同的表现。4）本研究中夫妻的二元压力应对方式所表现出的调节效果与过往研究相比相对更微弱。

本研究的理论意义在于扩展了以往集中在疾病或重大人生事件所带来的压力情况下被广泛应用的二元压力应对理论，证明了其在日常生活中经历慢性压力时也存在一定的效果。此外，本研究还检验了二元压力应对方式的调节作用的性别差异，对于理解家庭工作压力下男性和女性对于压力应对方式的不同需求提供了实证支持。

关键词：双职工，工作家庭压力，家庭工作压力，婚姻满意度，二元压力应对方式，调节效应

学号：2019-27523

The Association of Work-Family Stress on the Marriage Satisfaction of Chinese Dual-Income Family :Moderating Effects of Dyadic Coping

Wang Haiyu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and the increase in women's employment rate in recent years, the traditional family structure has changed, and the number of dual-income families with spouses involved in economic activities is increasing. In China's employment environment, where the "996" overtime working culture is prevalent, dual-earner families feel more pressure and conflict than traditional families in balancing work and family. In turn, work-family stress is one of the essential factors leading to low marital satisfaction among couples. In previous studies, scholars have mainly focused on the role of individual or organizational aspects of stress coping factors on the effects caused by work-family stress, while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coping styles of couples. Therefore, this study will focus on whether couples' dyadic stress coping styles can moderate the harmful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 and family-work conflict on marital satisfaction in dual-earner couples. Gender differences were also explored.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251 dual-earner women and 181 dual-earner men who were married and raising at least one child aged 0-6 years old.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work-family stress" and "family-work stress" and the dependent variable "personal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variable "couple's dyadic stress coping style (i.e., stress communication,

negative dyadic stress coping style, and couple's common dyadic coping style)" was examined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ge, final education level, length of marriage, occupation type,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monthly income, number of children, and whether the children are currently in care by a childcare agency were used as control variable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f work-family stress (perceived by dual-earner wives or husbands) on marital satisfaction. In contrast, family-work stress significantly negatively affected marital satisfaction. (2) Among couples' dyadic stress coping styles, individual stress communication and common dyadic coping ha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work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3) The moderating effects of individual stress communication and common dyadic coping differed according to gender.

The theoretic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extends the dyadic coping theory, which has been widely used in stress research examining non-normative major stressors, such as illness or significant life events. The results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dyadic coping in daily stress that stems from family-work conflict.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gender differences in the moderating effects of dyadic stress coping, providing empirical support for understanding the different needs of men and women for stress coping in the context of family work stress.

keywords : dual-earner couples, work-family stress, family-work stress, marital satisfaction, dyadic coping style, moderating effects
student number: 2019-27523